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池 在 元

TV 뉴스 진행자의 메이크업 특성에 관한 연구

- KBS와 SBS 여성앵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V News Anchor Women

- Focused on KBS and SBS Anchor Women -

2003년 6월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崔 喜 子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池 在 元

TV 뉴스 진행자의 메이크업 특성에 관한 연구

- KBS와 SBS 여성앵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V News Anchor Women

- Focused on KBS and SBS Anchor Women -

위 論 文 을 藝 術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3년 6월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學專攻

崔 喜 子

崔喜子の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년 6월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국문초록

본 연구는 TV 메이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국내 방송사 즉, 1992년에서 2002년까지의 KBS와 SBS의 뉴스진행자의 메이크업 특징 분석 및 여성 앵커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고정된 앵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각 개인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 컨셉과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여성 뉴스 진행자의 메이크업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립하고, 보다 이상적인 뉴스 여성 진행자의 이미지연출을 위하여 차별화된 메이크업을 체계화하여 실무자들에게 체계화된 방송 메이크업의 연출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뉴스메이크업의 특성은 메이크업의 간결성과 뉴스진행자의 개성미를 중시한 차별성, 현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행의 적절한 수용을 의미하는 대중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으로 제시하였는데, KBS의 경우 지적인 이미지에 신뢰감있는 메이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SBS의 경우 유행의 적절한 수용을 의미하는 대중성을 가미하여 뷰티메이크업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으며 채널간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따라서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앵커는 기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언론인으로서 차별화된 여성 앵커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적인 이미지와 신뢰감있는 메이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둘째, TV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TV메이크업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때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색상 및 형태가 신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역할의 신뢰감을 좌우하는 것이 메이크업시 자연스러움이다.

넷째, 아이섀도우 색조는 최대한 자연스런 오렌지와 살색 계열의 제품을 쓰고, 립스틱의 색상은 상의의 색상과 색상계열을 맞춰야 세련되고 차별해 보인다.

본 논문을 진행하면서 드라마, 쇼 등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이미지 변화가 적은 뉴스메이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이미지와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기획작업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현대인에게 어떠한 매체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TV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판단된다.

目 次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II. TV 뉴스의 일반적 고찰	6
1. TV 뉴스 앵커의 개념	6
2. 뉴스진행자의 조건	8
III. TV 메이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1. TV 메이크업의 종류	16
2. TV메이크업의 기술적 측면	18
3. 앵커 메이크업의 특성 및 방법	21
IV. TV 뉴스 여성앵커 메이크업 분석	32
1. 1990년대 이후 국내의 메이크업 트렌드	33
2. 1990년대 앵커의 메이크업 분석	34
3. 여성앵커 대상 설문분석	57
V. TV 여성앵커의 메이크업 제안	68
1. 제안 의도	69

2. 작품 제시	70
VI. 결론	94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설문지	103

표 목 차

<표 1> 앵커의 남녀 비율	15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57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58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59
<표 5> 화장품 구입 관련 사항	60
<표 6> 메이크업에 대한 만족도	62
<표 7> 피부표현 메이크업 1	63
<표 8> 피부표현 메이크업 2	64
<표 9> 눈썹 메이크업	65
<표 10> 눈과 입술메이크업	66

그림목차

<사진 1> SBS 한수진 앵커	10
<사진 2> 바바라 월터스	14
<사진 3> SBS 윤지영	25
<사진 4> SBS 최영아	25
<사진 5> SBS 이병희	26
<사진 6> KBS 한우경	28
<사진 7> 1992년 SBS 여성 앵커	35
<사진 8> 1992년 KBS 여성 앵커	36
<사진 9> 1993년 SBS 여성 앵커	37
<사진 10> 1993년 KBS 여성 앵커	38
<사진 11> 1994년 SBS 여성 앵커	39
<사진 12> 1994년 KBS 여성 앵커	40
<사진 13> 1995년 SBS 여성 앵커	41
<사진 14> 1995년 KBS 여성 앵커	42
<사진 15> 1996년 SBS 여성 앵커	43
<사진 16> 1996년 KBS 여성 앵커	44
<사진 17> 1997년 SBS 여성 앵커	45
<사진 18> 1997년 KBS 여성 앵커	46
<사진 19> 1998년 SBS 여성 앵커	47
<사진 20> 1998년 KBS 여성 앵커	48
<사진 21> 1999년 SBS 여성 앵커	49
<사진 22> 1999년 KBS 여성 앵커	50
<사진 23> 2000년 SBS 여성 앵커	51

<사진 24> 2000년 KBS 여성 앵커	52
<사진 25> 2001년 SBS 여성 앵커	53
<사진 26> 2001년 KBS 여성 앵커	54
<사진 27> 2002년 SBS 여성 앵커	55
<사진 28> 2002년 KBS 여성 앵커	55

작품 목차

<작품 1> KBS 봄(정면)	71
<작품 1> KBS 봄(측면)	72
<작품 2> KBS 여름(정면)	74
<작품 2> KBS 여름(측면)	75
<작품 3> KBS 가을(정면)	77
<작품 3> KBS 가을(측면)	78
<작품 4> KBS 겨울(정면)	80
<작품 4> KBS 겨울(측면)	81
<작품 5> SBS 봄(정면)	83
<작품 5> SBS 봄(측면)	84
<작품 6> SBS 여름(정면)	86
<작품 6> SBS 여름(측면)	87
<작품 7> SBS 가을(정면)	89
<작품 7> SBS 가을(측면)	90
<작품 8> SBS 겨울(정면)	92
<작품 8> SBS 겨울(측면)	9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메이크업은 시대와 문화권내에서 통용되는 미의 개념에 속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 많은 잡지, TV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정보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자신의 모든 라이프스타일을 말해 줌으로써 메이크업으로 인한 심리적인 효과, 즉 자신의 이미지가 자기 만족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는다.

메이크업은 표정이 있는 얼굴에 행하는 것으로서 개성 연출을 위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형태와 디테일한 선의 변화 및 색의 사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용모가 주는 인상 에 의해서 자신의 이미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으로 자신만의 고유미와 개성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과 스포츠를 즐길 때 입는 운동복,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입는 파티웨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옷차림을 달리하듯이 메이크업도 시간, 장소, 직업, 계절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토 탈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 얼굴이라는 한정된 부분에 행해지고, 일회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요성과 가치는 간과될 수 없다.

이제 메이크업은 더욱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감각을 필요로 하고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치를 높이고 하나의 독창적인

분야로 정립되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처럼 메이크업이 우리사회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문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메이크업 교육이 대학에 미용관련 학과들이 신설되면서 실용학문으로서 학문적 영역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

또한 현 사회는 ‘정보의 홍수’ 한가운데에 있으며 어떠한 대중매체보다 TV를 통해서 사고와 행동양식이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있다.

특히 TV뉴스는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에서도 신문을 앞질러 일반 국민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주로 얻는 주 정보원으로서의 자리를 굳혀왔으며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성인 남녀 가운데 80% 이상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TV뉴스를 시청한다는 최근의 일관된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¹⁾

무의식적으로 시청하는 TV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현대인의 의식 속에 침투하여 우리가 접하는 많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심지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 결정지어주고 있다.

또한 TV는 사람들의 눈을 세련되게 하여, TV 이미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방송인이나 연예인들에게 풍기는 세련됨을 기대하게 된다.

특히 TV뉴스는 TV의 보급과 함께 1950년대 이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방송사들은 TV 뉴스에 많은 기술적, 인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보다 다양한 뉴스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되

1) 이만웅,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나남출판, 1996, p.7.

었다. 뉴스프로그램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뉴스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진행자는 단순한 뉴스전달,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뉴스진행자에 대한 신뢰도는 곧 뉴스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며 뉴스의 가치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초기 TV뉴스 진행자의 역할과 비교해 볼 때 점차적으로 여성 앵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²⁾

2000년 5월 실시된 MBC ‘뉴스데스크 시청자 포럼’ 설문조사에서는 남녀 앵커의 비중에 대해 10명 중 8명 정도가 남녀 50 : 50의 비율이 좋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앵커가 시청률의 2%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우리 나라 시청자들은 여성앵커를 앵커로서의 전문적 능력보다는 외형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보여진다. 여성 앵커에 대한 선호도 조사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 앵커의 선호에 대한 이유로는 전달능력과 외모가 1, 2위를 차지했고, 앵커로서 가져야 할 전문적 자질은 5위를 차지했다.³⁾

2) 1983년 심야 마감뉴스인 <MBC 뉴스데이트>에 아나운서 입문 5개월의 박영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앵커로 등장한 이래, 아침 스포츠 뉴스에 진현숙이 등장했고 KBS에서는 각종 뉴스프로그램에 신은경, 김미희, 김희성, 정미홍 등의 여자아나운서들이 활약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1980~1990년대 여성 앵커들은 20대 아나운서 출신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1991년에 SBS는 한국 방송언론사상 최초로 ‘SBS 앵커 전문요원’을 선발하였다. 한수진 앵커가 전문 요원 출신이다. 1999년 4월에는 <MBC 뉴스데스크> 메인 여자 앵커로 기자 출신의 김은혜 앵커가 기용됐다. 2001년 남녀 앵커의 비율은 6:4인데 앞으로는 여성 앵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섭, TV 뉴스 앵커의 공신력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p.9.

3) 김재원, 대학생이 닮고 싶은 여성상 : 앵커우먼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 19권, 1998, p. 174.

이처럼 여성 앵커의 경우 외모가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방송사 중 1992년에서 2002년까지의 KBS와 SBS의 뉴스진행자의 메이크업 특징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일관적이고 고정된 앵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각 개인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 컨셉과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여성 뉴스진행자의 메이크업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립하고, 보다 이상적인 여성 뉴스진행자의 이미지연출을 위하여 차별화 된 메이크업을 체계화하여 실무자들에게 체계화된 방송 메이크업의 연출과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국내외의 학위논문과 서적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통해 TV 뉴스진행자(앵커)의 개념과 조건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토대로, TV 메이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다. 즉, TV 메이크업 종류, TV 메이크업의 기술적 측면, TV 메이크업의 기초, 그리고 앵커 메이크업의 특성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방송자료⁴⁾를 통해서 1992년에서 2002년까지의 KBS, SBS의 여성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2003년 4월 현재 KBS와 SBS 소속 여

4) ‘방송보도론’, ‘방송실무’, ‘한국TV저널리즘의 이해’ 등 주로 방송전문서적과 각 방송사별 홍보자료와 영상자료인 비디오, 국내외 잡지, 또는 실물촬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 앵커 22명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3년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18일 동안 연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 방송사를 KBS와 SBS로 한 것은 공영방송의 경우는 권위적이고 점잖고 남성 지향적인 앵커를 선호하는 반면에 상업(민영)방송의 경우는 여성 지향적이고 날렵한 이미지의 사람을 앵커로 기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두 방송사간의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찾고자 함이다.

폭넓게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이미지별 스타일 제시와 메이크업의 개성미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세밀하게는 뉴스진행자 메이크업의 특징과 그 연출방법의 시각적, 심리적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실무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TV 뉴스의 일반적 고찰

1. TV 뉴스 앵커의 개념

앵커란 갖가지 뉴스 소재에 대한 기자들의 심층 또는 현장보도를 매끄럽게 끌어들이고 인터뷰나 해설 및 자신의 논평도 곁들이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이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감으로써 보도자의 차원을 넘어 해설자, 비평가, 인터뷰어에다 보도기자까지 겸하는 뉴스캐스터를 말한다.⁵⁾

매스컴 용어 사전에서 보면 앵커(anchor)란 ‘앵커맨(anchor man) 또는 앵커우먼(anchor woman)의 준말로, 즉 뉴스를 읽고, 분석하고, 코멘트하고, 인터뷰하는 TV뉴스쇼 진행의 전담자⁶⁾’라고 되어 있다. 또한 앵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닳, 고정장치, 줄다리기의 맨 끝 사람, 릴레이의 최종주자 등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자면 앵커는 뉴스보도에 있어서 자신의 해설과 논평을 곁들이면서, 뉴스 취재와 편집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뉴스쇼의 중심을 잡아주는 닳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앵커라는 용어는 우리 나라에서 대개 TV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칭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으며, 뉴스캐스터라는 용어와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구분하자면, 앵커는 미국의 상업방

5)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대사전』, 나남출판사, 1990, p.562.

6) 임정섭, TV뉴스 앵커의 공신력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p.5.

송 환경 속에서 뉴스에 대한 재량권과 앵커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중시되는 뉴스 진행자에 해당되는 용어다. 따라서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경우 뉴스 진행자는 이미 제작된 뉴스를 나름대로의 패턴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앵커라기보다는 뉴스캐스터(영국에서는 'news reader'로 부르기도 함⁷⁾)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에서는 뉴스캐스터와 앵커의 두 용어가 혼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뉴스를 형식에 따라 분류하자면 스트레이트 뉴스와 뉴스 쇼로 나뉜다. 스트레이트 뉴스는 뉴스 진행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 사고의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아나운서나 뉴스 리더(reader)가 맡는다. 반면 뉴스쇼는 '종합 뉴스'를 말하는 것으로 대체로 30분 이상의 와이드 형태로서 기자의 목격보도와 현장보도가 중심이 된다. 이러한 뉴스쇼의 진행자를 앵커맨이라고 하고 여자를 앵커우먼, 남녀 공통 앵커를 앵커 또는 앵커퍼슨이라고 부른다. 뉴스쇼의 앵커는 단순한 낭독자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인터뷰하고 뉴스를 분석하고 논평하기도 한다.⁸⁾

7) 김성길, 『방송진행소프트』, 한울, 1998, p.27.

8) 김우룡, 『방송보도론』, 나남출판사, 1993, p.28.

2. 뉴스진행자의 조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방송환경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본격적인 위성방송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시청자의 층도 다양해졌고 앵커 개개인에 대한 요구와 기대도 다양하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말을 보편화시킨 사람은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Harry Truman)인데, 이 말은 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이었다. TV뉴스에서 책임에 대하여 알려진 잘못된 개념은 뉴스의 내용이 유해하든지 무해하든지 시청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책임이 앵커, 뉴스캐스터, 뉴스리더(뉴스를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됨) 또는 진행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⁹⁾

오늘날 뉴스진행자는 누구 못지 않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친밀 관계에 있다. 진행자의 용모, 눈빛, 음성, 의상, 메이크업 하나 하나에 전달하고자 하는 보도 기사의 신뢰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뉴스 프로그램의 성공여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뉴스진행자에 대한 신뢰와 호감은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며 현대인에게 뉴스가 주는 의미가 중요하듯이 비례적으로 뉴스진행자 또한 많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뉴스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 뉴스진행자에게도 신뢰성을 주는 이미

9) 백선기 역, 『텔레비전 뉴스』, 한국방송개발원, 1997, p.460.

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뉴스진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외모

TV 메시지는 크게 음향과 영상으로 구성된다. 영상은 음향 없이 표정과 제스처의 화면만으로도 메시지의 전달기능을 한다. 아무리 말씨와 수사력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시청자의 기억에 오래 머물기가 쉽지 않지만 영상의 지각작용에 의한 것은 그 생명력이 오래간다.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뉴스진행자도 마찬가지로 기사를 전달하는 음성뿐 아니라, 외모는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⁰⁾

뉴스전달자로서의 신뢰감을 갖추기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보아도 거부감을 주지 않은 적당한 의상, 헤어스타일, 뉴스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내추럴하면서도 단정한 메이크업 또한 필수적이다.

과장되지 않은 제스처나 생생한 보도에 적합한 눈빛은 시청자와 질적인 접촉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뉴스진행자에 따른 시청률의 변화를 언급했듯이 진행자의 많은 장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또한 얼굴이다. 최고의 미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뢰감과 호감을 시청자에게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우면서 친근감과 자신감을 풍기는 외모가 필요하다.

10) 나선희, 앵커의 이미지와 화법이 뉴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1, p.7.

1994년부터 현재까지 SBS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수진 앵커<사진 1>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시청자들이 호감을 느끼는 여성 앵커의 전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사진 1> SBS 한수진 앵커

2) 음성

앵커의 기본 요소로서 정확하고 호감을 주는 음성을 빼놓을 수 없다. TV 매체로서 영상의 중요성을 언급했듯 음향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진행자는 음성전달방식의 개선을 위해 꾸준한 연습과 방송진행 속도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진행자가 말하는 방식에 따라 시청자들의 공감의 여부가 달려있다.

따라서 듣기 좋고 정확한 음성은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흥미와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 명백한 기사 전달은 뉴스 진행자의 중요한 자질이고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인 음성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의 뉴스는 대부분 아나운서들이 전달했으며, 현재도 많은 아나운서들이 뉴스진행을 맡고 있다.

3) 신뢰감

시청자와 진행자는 감정적인 차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매일 매일 시청자들의 안방으로 찾아오는 앵커와 감정이입을 통해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청자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실수들, 즉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지 부정확하고 모호한 보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CBS앵커 월터 크롱카이트(Walter Cronkite)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로 선정됐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가 하는 말 또한 신빙성 없이 취급될 수 있다. 때문에 뉴스 진행자는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어떠한 능력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TV 프로그램 중 어떠한 부분보다도 뉴스 앵커의 중요한 자질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침착함과 자신감, 집중력의 배양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4) 언론인으로서의 능력

초창기 뉴스진행자는 대부분 아나운서들이 담당했으며 취재나 기사작성 이외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기사 취재, 편집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완성된 기사를 단순히 카메라 앞에 앉아 읽기만 했다. 하지만 점차 뉴스진행자들도 직접 화제가 되는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앵커 본인이 직접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감정이입이 되지 못한 채로 기사를 줄줄 읽거나 갑자기 말을 머뭇거리고 멈추며 자신의 대본을 내려다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¹¹⁾ 이러한 경우 시청자들은 진행자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비해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반면에 뉴스 진행자의 탁월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능력으로 인해 기억되는 사례도 있다.

1980년 11월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호텔의 화재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긴급한 상황에 루 워터스라는 앵커는 원고나 기사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쌓인 신뢰도와 진행능력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할 수 있었다.¹²⁾

이것은 바로 앵커에게 있어서 호감을 주는 인상과 명확한 음성, 신뢰감과 더불어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CBS뉴스 사장이었던 윌리엄 레오나드는 훌륭한 앵커맨이 갖추어야 할 덕목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¹³⁾

첫째, 훌륭한 방송인으로서의 능력, 즉, 용모, 문장력, 표현력과 둘째, 언론인으로서의 능력 즉, 기자로서의 능력, 판단력, 취재감각, 추진력 셋째, 위기

11) 닐포스트만, 스티브파워즈 공저/정탁영, 박영근 공역, 『TV뉴스 어떻게 봐야하나』, 참미디어, 1998, p. 69.

12) 행크 휘트모어/김석희 역, 『CNN』, 국제언론문화사, 1991, p.251.

13) 강대인, 『방송저널리즘의 대명사 댄래더』, MBC가이드, 1985, p.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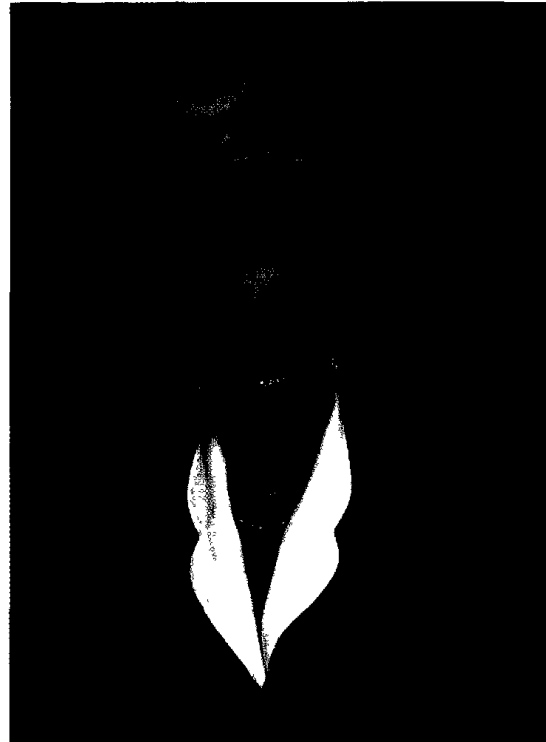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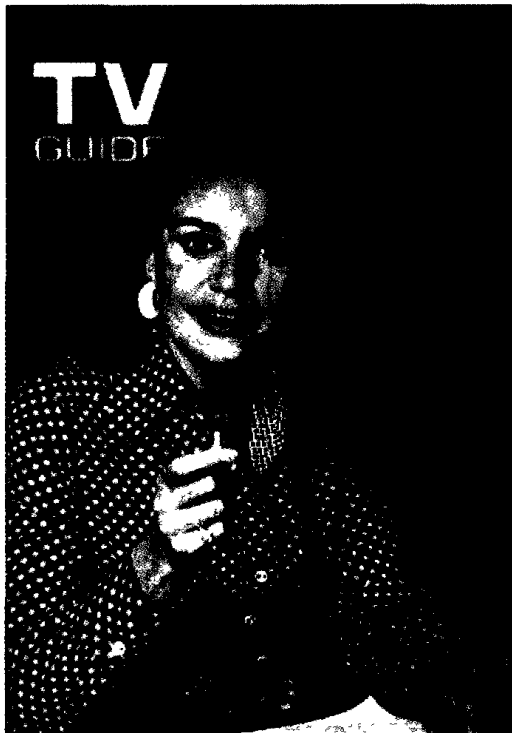
나 돌발적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즉, 순발력, 임기응변의 능력 빛재, 공적 개인적인 면에서의 퍼스널리티를 갖춘 사람이라고 제시하였다.

이것은 앵커의 자질과 뉴스 프로그램에서의 주어진 역할을 의미한다.

언론인으로서 여성앵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바라 월터스(Babara Walters)는 여성운동이 활발했던 70년대의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저녁 뉴스 진행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미모와는 거리가 있는 기자이며, 당시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는 획기적인 기용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얼굴에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질문능력, 듣기에 오히려 거북한 목소리를 특징으로 한 전형적인 취재기자였다. 그녀는 뉴스를 맡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여성스럽고 우아한 여성앵커로서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스타일을 만들어 갔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남성이 대부분의 역할을 맡았던 TV뉴스의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언론인으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었음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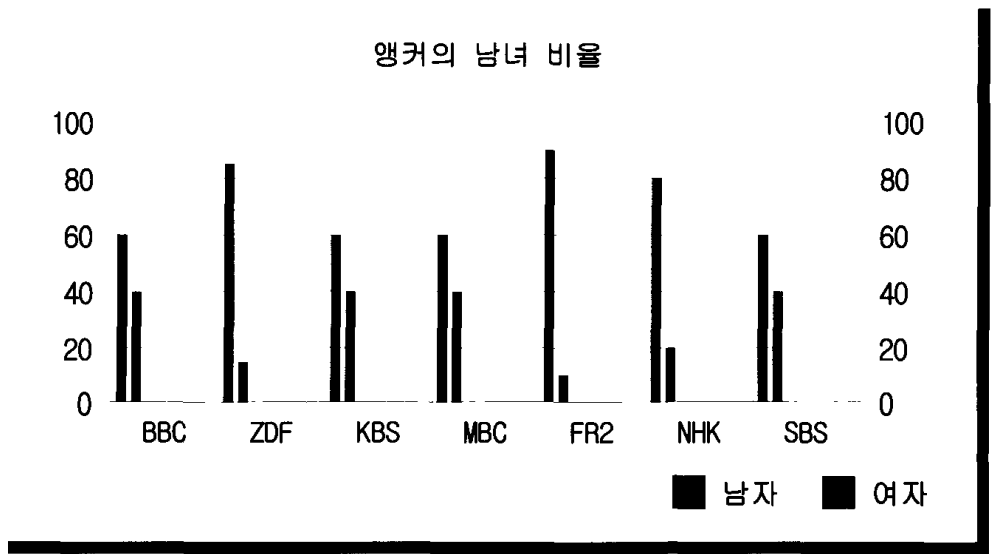
바바라 월터스는 현재까지도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성앵커로서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사진 2> 바바라 월터스(출연 프로그램;ABC 20/20, The View)

여성앵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기자 출신의 진행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자들의 뉴스진행은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경우 뉴스에서 남녀비율은 다른 나라의 방송사에 비해서 여성진행자의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SBS의 경우 대부분의 뉴스는 남녀가 함께 진행을 맡고 있으며, 주말뉴스의 진행 또한 여성앵커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여성앵커의 이미지에 따른 차별화 된 메이크업이 해당 방송사의 trade mark가 될 수 있는 전망이 크다.¹⁴⁾



<표 1> 앵커의 남녀 비율

14) 2001년 남녀 앵커의 비율은 6:4의 비율로 앞으로는 여성 앵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섭, TV 뉴스 앵커의 공신력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p.9.

Ⅲ. TV 메이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TV 메이크업의 종류

TV 메이크업의 종류는 사실적 메이크업, 양식적 메이크업, 상징적 메이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

1) 사실적 메이크업

이 메이크업의 핵심은 사실적 신체 묘사이다. 인물의 심리 상태를 안면 근육의 움직임에 계산하여 심리학적, 해부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① 보통 메이크업

피부색을 결정할 때는 조명, 배경, 의상색이나 카메라의 위치, 영상의 재현 색까지를 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보통 메이크업은 피부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메이크업으로서 앵커맨, 아나운서, 일반 출연자들에게 사용되는 메이크업이다. 얼굴에 착색된 파운데이션은 자연색에 가깝게 해야하며 눈으로 본색이나 기억색이 TV 수상기에 재현되었을 때 반드시 본래색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② 성격 메이크업

배역 인물이 지닌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 외양의 특징, 기질, 건강 등의 요

15) 김경순외 4인, 『MAKEUP II』, 청구문화사, 2000, pp. 97~98.

소를 기본으로 해서 인물을 분석한 후 메이크업을 통한 용모 변화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성격 메이크업은 철저한 대본 파악과 분석 작업을 통해 인물의 여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우의 얼굴 위에 메이크업술로 외모를 바꾸어냄으로써 성격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2) 양식적 메이크업

극중 인물의 성격 표현을 하나의 전형으로 양식화해서 그 형에 의해서 대본의 유사 인물 성격을 표현해 내는 방법인데 일본의 가부키나 중국의 고전극인 경극이 이에 속한다.

3) 상징적 메이크업

이상화된 표현에 의해서 성격을 묘사하는 것으로 가면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이집트의 눈 화장술은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눈을 검게 했으며, 양끝은 확대해서 그렸는데 이는 귀신을 쫓으려는 목적으로 주술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초에 제도화된 기생(妓生)의 짙은 화장, 즉 분대 화장(粉黛化粧)을 상징적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분대 화장은 반지르한 머리, 눈썹과 연지화장 외에 백분을 많이 펴 바른 것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짙은 화장이었다. 이는 기생을 분대라고 불렀을 만큼 기생의 상징적인 치장이었다.

2. TV메이크업의 기술적 측면

컬러 TV의 등장으로 메이크업의 조건과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흑백 TV 시기에는 단순히 명암만을 고려했던 메이크업 기법이 다양한 제작 여건의 변화 속에서 여러 분야와의 유기적 관계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TV 속에서 메이크업은 조명이나 TV 카메라와 그 재현색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생겨나기 쉬운 얼굴의 부자연스러움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한 배우들의 심리적 부담을 감추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메이크업은 얼굴과 머리를 위주로 해서 인물의 성격을 도와야 하며 의상, 장신구, 배경세트, 소도구, 대도구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와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컬러 TV은 색채 조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출연 인물의 피부색이 가장 섬세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피부색의 선택에 따라 전체 색조가 정해지므로 컬러 TV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이크업인 것이다.

TV 메이크업은 매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메이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은 촬상관의 재생 특성, TV 조명 기술, 주위색, TV클로즈업 기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메이크업과 TV 카메라 촬상관의 상관관계

촬상관은 특정한 음영부분을 과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 안에서는 거의 눈치챌 수 없는 붐 마이크의 그림자가 부조의 모니터 안에서는 뚜렷이 나타난다. 눈, 코, 턱바로 밑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는 사람의 얼굴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남자는 되도록 깨끗하게 면도를 해야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가 많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면 종종 턱에 어둡고 까칠한 부스럼이 난 것처럼 TV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2) TV 조명과 메이크업

인물의 머리 위에서 빛을 가하는 TV 조명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림자들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그림자는 특히 눈썹 아래, 코와 턱 밑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매우 불쾌해 보이는 그림자를 수정하려 할 때 메이크업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그림자를 없애려면 모든 음영의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약간 더 밝게 하면 된다.

컬러 TV에서 조명은 흑백 TV에서의 조명보다 평면적인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일부의 메이크업아티스트들은 특수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연기자의 얼굴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다. 조명은 메이크업을 크게 지배하는 요소가 되므로 조명의 종류, 강도, 위치가 메이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어야 한다.

3) 주위색과 메이크업

일반적으로 밝은 드레스나 양복, 밝은 배경에 의해 주위색이 밝게 형성되는 경우 연기자는 다소 밝은 색조의 분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색이 너무 어둡게 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위색이 어둡다면 평소보다 약간 어둡게 메이크업해야만 얼굴과 피부색이 너무 밝게 보이지 않는다.

컬러 TV의 경우 주위색이 가끔 얼굴에 반사되기도 하고 그러한 반사광은 TV 카메라에 의해 크게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피부 반사를 피할 수는 없지만 피부의 전반적인 반사율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반사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연기자는 피부의 보통 정도의 윤기를 가져야 한다. 너무 번들거리서도 안되고 너무 윤기가 없어서 광채나 생기가 없어도 안된다.

10단계 명도에서 거의 3단계에 해당하는 35%의 반사율을 갖는 피부색이 컬러 TV에서 적절하다.

4) 클로즈업과 메이크업

TV분장은 연기자의 얼굴이 극도의 클로즈업에서도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자연스러운 표현은 TV 메이크업에서 최고의 난이도로 표현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기술이다. 메이크업을 했으면서도 안한 듯한 자연스러움이야말로 뛰어난 메이크업아티스트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바로 이점이 TV메이크업과 연극 메이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연극은 관객과의 직접 대면으로 인해 몇 미터밖에 있는 관객에게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이므로 얼굴의 색과 선이 과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클로즈업이 존재하는 TV에서는 얼굴의 선과 색이 튀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TV에서 클로즈업은 메이크업의 필요성과 실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앵커 메이크업의 특성 및 방법

1) TV 뉴스 메이크업의 특성

한 연구에 따르면 뉴스의 시청 결정요인은 프로그램 시청동기, 형성요인, 시청자의 이미지 내지 인식과 관련된 요인으로 분류했으며, 특정 뉴스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상정될 수 있는 이미지 요인은 전체 채널 내지 방송사에 대한 이미지, 해당채널 내지 방송사의 뉴스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뉴스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앵커에 대한 이미지 등을 들 수 있다.¹⁶⁾

뉴스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은 각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을 들 수 있다. 뉴스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방송사의 이미지에 어떤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스 전후의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메인 뉴스의 시청률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뉴스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미지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앵커는 단순히 전달자의 차원을 넘어 해당 뉴스프로그램의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6) 이재현,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 이미지, 그리고 뉴스 시청행태, 방송문화연구, 1994, p.225.

즉 방송사간 시청선호도에 근거해서 앵커 호감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면 비례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앵커의 호감도에는 외모, 의상, 음성 등의 여러 요소가 있으며 메이크업이 차지하는 부분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청자가 보기에 조화로운 컬러와 얼굴에 어울리는 세련되고 신뢰감을 주는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TV 뉴스에서의 앵커는 자기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개선된 새로운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앵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인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컨셉에 적합한 여러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1) 간결성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은 많은 직업과, 상황, 연령에 따른 역할 수행에 의해 전반적인 타입으로 정리해야 하고 역할수행에 적절한 품위와 미적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형성되었을 때 긍정적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뉴스프로그램에서 기대되는 뉴스진행자에 대한 이미지는 우선 신뢰감을 들 수 있다.

뉴스진행자는 시청자들이 일반연예인에게 기대하는 유희성 이상의 것을 요구받게 되고 그것은 삶에 필요한 정보전달과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제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대상자는 최대의 신뢰감과 지적이미지를 연출해야 한다.

이처럼 역할의 신뢰감을 좌우하는 것이 인물들의 메이크업시 자연스러움이다. 뉴스 전달자의 두꺼운 메이크업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연기자의 연기처럼 보여져 뉴스의 신뢰감이나 진실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른 아침 뉴스의 경우, 여자 아나운서의 지나친 색조 메이크업이나 결점 수정 메이크업보다는 자신의 얼굴 중, 최대 장점 하나를 포인트로 살리는 기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적인 이미지와 언론인으로서의 신뢰감 형성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¹⁷⁾

(2) 차별성

실제의 메이크업은 신분, 역할, 개인의 표현욕구 등 메이크업 그 이상의 의미를 타인에게 부여한다.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수용된다면, 부적합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각 개인은 체형, 피부색, 이목구비의 형태, 헤어스타일, 음성, 분위기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차별적인 이미지 연출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다소의 결함과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불균형의 신체적 구조와 조건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TV 시청시 무엇보다도 화면으로 표현되는 영상이 시청자의 가슴에 더 깊이 저장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러므로 TV에 있어서 메이크업은 영상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앵커 이미지에 적합한 메이크업이 결정되었을 때 그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김경순외 4인, 앞의 책, pp. 99~100.

앵커의 역할 수행에 효과적으로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물분석단계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뉴스진행자에 대한 객관적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각기 다른 외모, 음성, 체격 등을 다양하게 소유한 각 개인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메이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름다움이란 절대적 가치를 논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각자의 기본적인 바탕 위에 조화로운 자기만의 개성미를 연출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개인의 차별적인 요소 중에서도 뉴스메이크업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얼굴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해 얼굴형에 따른 적합한 메이크업을 제시해 본다.

가. 둥근형

둥근형의 얼굴은 자칫하면 답답한 인상을 주기 쉬우므로, 우선 얼굴을 길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너무 두껍게 메이크업하거나 라인수정을 많이 하면 부자연스러워지므로 파스텔톤으로 자연스럽게 색조화장을 하고, 얼굴형의 단점을 모두 수정하기 보다는 장점으로 활용하는 메이크업 계획이 필요하다.

피부표현은 밝고 화사하게 피부톤을 조절하고, 눈썹은 진하지 않은 그레이 색으로 눈썹산이 높은 둥근 화살형으로 그린다. 눈은 베이스를 인디언 핑크색으로 펴 바른 후 눈꼬리와 언더라인 부분에 어두운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부드럽게 그라데이션한다. 눈썹뼈를 중심으로 하이라이트를 라이

이트 핑크색으로 바른다. 입술은 옅은 핑크계열로 입술 산에 포인트를 주어 둥글고 도톰한 윤곽을 그린 후 핑크 펄로 립스틱을 바른다. 볼은 광대뼈를 중심으로 어두운 핑크색으로 둥글게 바른다.



<사진 3> SBS 윤지영(생방송 모닝와이드)

<사진 4> SBS 최영아(SBS 8시뉴스)

SBS 윤지영의 경우 둥근얼굴을 가름하게 보기위 위해 섀딩을 주어 얼굴이 길어보이게 표현하였고, 티존과 코 등에는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SBS 최영아의 경우는 피부색깔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해서 바르고 전체적으로 양쪽 볼과 이마선과 턱선에 섀딩을 해서 얼굴을 작아보이게 하며 티존과 코 등에 하이라이트를 주어서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하였다.

나. 긴 얼굴형

얼굴의 길이가 두드러지는 이 타입은 전체를 부드럽게 보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헤어스타일은 너무 긴 스타일이면 얼굴이 더욱 길어 보이므로 지양해

야 하고, 액세서리도 폭이 넓은 형태를 택해 얼굴의 중앙부위가 더욱 넓어 보이도록 한다. 길고 가름한 얼굴형은 여성스러움과 성숙한 이미지를 주고 포인트메이크업은 얼굴형태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이미지 연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피부표현은 핑크톤이 도는 화운데이션과 파우더를 발라 화사한 피부톤과 얼굴윤곽 수정에 중점을 둔다. 눈썹은 부드러운 일자형으로 그린 후 이미지 색상은 진한 브라운색이 좋다. 눈은 베이스를 인디언핑크로 연하게 펴고 어두운 퍼플색으로도 포인트를 주어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한다. 눈머리에 흰색 펄을 넓게 펴 발라 하이라이트를 준다.

입술은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형이 좋으나 너무 둥글거나 크게 그리지 않는다. 색상은 투명하고 밝은 핑크톤으로 바르고, 볼은 광대뼈를 중심으로 폭 넓게 인디언 핑크로 바른다.



<사진 5> SBS 이병희(출발 모닝와이드)

SBS 이병희의 경우는 길어 보이는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 눈썹을 길게 표

현하였고, 새도우 자체를 안쪽에 몰리지 않게 바깥쪽으로 약하게 표현하였으며, 새딩을 턱과 이마 중심으로 하여 얼굴을 기본형에 가깝게 메이크업하였다.

다. 네모난 형

네모난 얼굴형은 얼굴이 길어 보이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폭이 넓은 이마와 각이 진 턱을 가진 얼굴형은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 얼굴형은 강하지만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깊이 있고 원숙한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용이하다.

피부표현은 밝은 브라운 계열의 차분한 베이스로 건강한 피부톤을 만들고, 눈썹은 눈썹산을 약간 각을 주어 그리며 어두운 그레이색을 선택하여 다소 진하게 그린다.

눈은 옅은 오렌지색으로 베이스를 바른 후 그레이와 브라운 계열로 포인트를 주어 그라데이션 한 후 눈썹뼈 밑에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준다. 입술은 입술산을 각지게 그리고 입술선도 둥글리지 않는다. 입술이 작으면 왜소한 느낌을 주므로 윤곽에 맞추어 짙게 그린 후 어두운 레드색으로 립스틱을 바른다.

볼은 귀쪽에서 광대뼈 쪽으로 브라운 계열의 블러셔를 폭넓게 바른다.

KBS 한우경의 경우는 네모진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가렸으며, 이마와 턱선을 새딩으로 커버하였다.



<사진 6> KBS 한우경(KBS 9시 뉴스 기상 캐스터)

라. 마름모형

얼굴이 길고 광대뼈가 옆으로 나와 폭이 넓고 이마나 턱 부분은 좁은 형이다. 이마 중심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그 부분이 튀어나와 보이게 하고 높은 광대뼈에는 섀도우를 넣어 축소되어 보이도록 하며, 관자놀이와 뺨 밑에는 밝게 처리하여 양쪽 볼이 풍만해 보이도록 한다. 또 뽕족한 턱은 어둡게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한다.

(3) 대중성

유행은 넓은 의미로서는 관습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기에 한 집단 사람들에게 의하여 채택된 의복, 음식, 동작, 언어의 받아들여진 방식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유행은 현재의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관습과는 달리 변화를 존중한다¹⁸⁾라는 말처럼 유행은 계속된 변화와 반복적이지만 변형

된 스타일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소멸한다. 현 사회는 어떤 매체보다도 TV를 통해서 유행은 발생되고 급속하게 확산된다. 시청자들은 TV를 통해서 유행은 발생되고 급속하게 확산된다. 시청자들은 TV에 등장하는 인물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고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적 동요가 발생하며, 그것은 상업적 마케팅과 연결되기도 한다.

뉴스진행자는 정보전달 이외에 그 시대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저널리스트로서 존경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뉴스진행자는 유행의 주기로 볼 때 대중이 가장 많이 유행을 수용한 매스패션 단계에 속해야 하며, 유행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뉴스진행자들의 메이크업을 할 때는 계절과 유행을 앞서나가는 상황이지만 전형적인 앵커 스타일에 벗어나지 않는 메이크업에 제한을 둔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보수적인 이미지는 뉴스진행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스타일이다. 따라서 각각의 이미지와 체형은 다르지만 뉴스진행자에게 있어서 신뢰감 있는 이미지의 연출에 목적을 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뉴스 메이크업은 기본적인 요소에 차별화 되고 유행에 대한 수용 정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섬세하면서도 엄격한 메이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앵커 메이크업의 특성 및 방법

앵커는 미국의 상업방송에서 쓰이는 신조어로 유럽, 일본에서는 뉴스 캐스터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 역할은 뉴스 캐스터가 이미 취재, 편집된 뉴

18) 강혜원, 『심리학』, 교문사, 1992, P.127.

스의 단순한 전달자임에 비해 앵커맨은 단순한 전달자에서 그치지 않고 뉴스의 취재, 편집 등에 관여하는 조직의 편집자라는 점에 있다.

이처럼 역할의 신뢰감을 좌우하는 것이 인물들의 메이크업시 자연스러움이다. 뉴스 전달자의 두꺼운 메이크업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연기자의 연기처럼 보여져 뉴스의 신뢰감이나 진실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인조 속눈썹이나 두꺼운 마스크라 두꺼운 아이라이너는 눈 주위에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눈의 크기를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

아이새도우 색조는 최대한 자연스런 오렌지 갈색 계열을 쓴다. 립스틱의 색상은 상의의 색상과 색상계열을 맞춰야 세련되고 차분해 보인다.

남자앵커의 경우, 기본 피부 표현시 화장품의 양을 가급적 최대한 줄이고 가벼운 터치가 좋다. 너무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했다고 생각될 경우, 스펀지를 티슈에 살짝 감싸 한번 닦아주면 된다.

연륜이 많은 진행자의 경우, 얼굴의 주름이 깊을 때는(특히 이마) 절대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이 주름의 굴곡진 부위에 들어가 더욱 더 주름을 부각시키는 수가 있다. 간혹 푸른 수염 자국이 유난히 진한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의 수정법은 단순히 기본 파운데이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붉은 기의 파운데이션을 섞어 인중, 턱 부위에 발라 주면 푸른 기를 줄일 수 있다.

긴급 뉴스나 야간 근무로 인해 수면 부족 상태에서 보도할 경우(기자의 속보) 눈밑 그늘을 없애 주어야하는데 이때, 피부가 창백한 사람은 핑크톤의 파운데이션으로, 피부톤이 낮은 사람의 경우엔 약간의 붉은(오렌지)톤의 파

운데이션으로 수정해 준다. 그런 다음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그려주어 눈의 피곤함을 상쇄시켜 준다. 안약이나 식염수를 권할 수도 있다.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혹 모발이 빈약한 사람을 분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최대 주의점은 헤어라인 부위까지 얼굴로 간주해 피부 표현을 한 후 충분한 파우더를 이용, 조명의 반사를 막아준다.

IV. TV 뉴스 여성앵커 메이크업 분석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현실적 상황에서 뉴스에서의 여성진행자의 역할은 아직까지도 보조적인 몫을 담당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남성 앵커는 정치와 경제라는 경성뉴스를 맡게 하는 방법으로 아예 남녀의 역할을 구분해 버린다.¹⁹⁾ SBS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우리 나라의 방송뉴스형태를 벗어나 한수진 앵커를 여성진행자로 내세운 후 남성앵커와 대등한 뉴스소재를 담당케 하고 있으며, 기자출신으로서의 여성앵커는 시청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보나 큰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뉴스진행자의 이미지는 기존의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에서 취재기자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단순하고 중성적인 스타일로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뉴스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자체의 아름다움과 주목성에 비중을 두었던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나 여성앵커의 이미지에 조화를 이루는 점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국내의 메이크업 트렌드 변천과 함께 KBS, SBS의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트렌드 분석 및 여성앵커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TV 뉴스 여성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앵커에게 미적 가치 이상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앵커의 메이크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9) 아시아 여성 연구소, 한국과 일본의 TV 뉴스 분석결과 나타난 여성 차별 비교
<http://sookmyyung.ac.kr/~asianfem/gg/g4-frame.htm>.

1. 1990년대 이후 국내의 메이크업 트렌드

90년대의 최고의 관심사는 환경 문제로 이에 대한 관심은 에콜로지풍이라는 유행을 만들어 냈다. 화려한 원색 컬러 대신 자연색인 그린이나 브라운 컬러가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²⁰⁾ 패션과 더불어 복고풍의 회귀라는 명제 아래 다양한 스타일이 몇 개월 주기로 변화됨을 보여주었다. 90년대 들어서는 가는 눈썹과 함께 매트한 립스틱이 인기를 끌면서 서서히 과장된 입술과 함께 검은 빛이 감도는 보라색 브라운 등의 색상이 강세를 띄었다. 바르는 스타일도 다양해졌다. 같은 색상의 립스틱과 립라이너가 아닌 보다 어두운 색상의 라인을 강조하여 안쪽에 바르는 색상을 달리 하여 입체감있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눈썹과 입술 색상이 강조되어 아이새도우 색상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96년도부터 아이새도우로 눈 주위를 강조하는 림드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면서 97년에는 그린과 블루컬러가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입술은 립글로스를 덧발라 투명하면서 글로시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세기말의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미래에 대한 동경과 두려움이 메이크업에도 반영되어 다양한 표현 방법이 나타났다. 샤이니 펄 메이크업으로 투명감을 강조하는 베이스 표현은 파우더, 아이새도우, 블러셔, 립스틱에도 광택이 들어가지만 입술과 눈을 내추럴하게 표현하여 맑은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창백한 베이스에 반짝이는 아이새도우와 아이라인으로 눈꼬리를 강조하고 마스카라를 듬뿍 바르며 입술색은 광택으로 처리하였다.

20) 한명숙, 『마귀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p. 173.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컬러는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표현수단으로써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지되고, 산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투영된 유행색을 반영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영향은 의상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메이크업 색상에 가장 많이 미치게 되어 종전과는 달리 매 계절마다 트렌드 컬러를 출시하여 트렌드 메이크업 패턴을 소개하면서 각 사가 메이크업 제품 판매 경쟁을 하였다.

2. 1990년대 앵커의 메이크업 분석

1) 1992년 메이크업

1992년에는 60, 70년대의 복고풍의 패션경향에 따라서 메이크업을 하였다. 분홍, 주황, 노랑 등의 밝고 따뜻한 난색계열의 색상으로 60년대의 생동감 및 환상적 분위기로 재현하였다.

1992년 SBS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을 보면 아래 <사진 7>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베이스가 진하게 느껴지며 눈썹이 짙고 굵다. 거의 일자에 가깝고 인위적이고 각이 졌으며, 갈색 새도우를 사용하였고, 눈 위 아래쪽 라인에 검정 펜슬을 사용하여 번져있다.

또한 코선이 짙고, 티존과 볼부분 하이라이트가 매우 강하고, 루즈는 갈색 계열과 진달래색 레드계열을 사용하였으며, 이마선과 얼굴전체에 새당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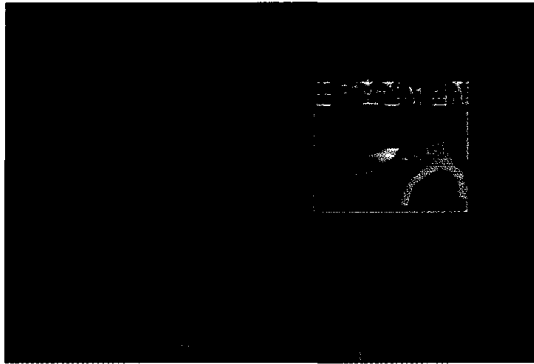


<사진 7> 1992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992년 KBS 앵커 메이크업의 특징으로는 앵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눈썹이 짧고 진하다. 섀도우가 진해지고 눈꼬리 부분을 펜

슬로 연결지었다.

눈 아이라인을 강조하였고, 입술에 펄이 느껴지며, 코선의 강조가 심하다.



<사진 8> 1992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2) 1993년 메이크업

1993년에는 40년대 풍의 탁하고 깊은 색조의 패션경향에 따라서 메이크업에서는 둥글고 가늘고 얇은 눈썹선에 도톰한 입술을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여성적인 길고 가는 라인의 40년대 스타일의 패션이 전개됨에 따라서 포도주색으로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1993년 SBS 앵커들의 메이크업특징으로는 베이스가 조금 자연스러워졌으

며, 눈썹이 얇고 길며 코선에 느낌이 자연스럽다. 갈색 새도우 아이 펜슬을 사용하였고, 루즈는 브라운색 계열을 사용하였다. 이마선과 얼굴 전체에 섀딩이 강하다.



<사진 9> 1993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993년 KBS 앵커들의 메이크업특징으로는 눈썹이 가늘어지며 조금 안정되어 보인다. 눈 두덩이의 윤곽이 선명하다. 펜슬로 인한 아이라인이 번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붉은빛과 와인 갈색 루즈를 사용하였다.



<사진 10> 1993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4) 1994년 메이크업

1994년에는 패션에 있어서 갈색, 빨강색, 자주색과 다양한 색조의 파랑이 유행색이었는데, 메이크업에서도 이러한 색상으로 동양적 이미지의 민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1994년 SBS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눈썹이 얇아지고 기본형에 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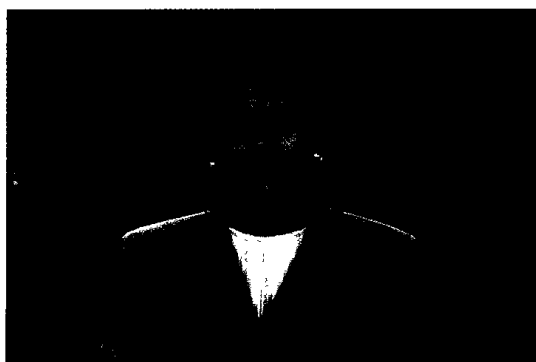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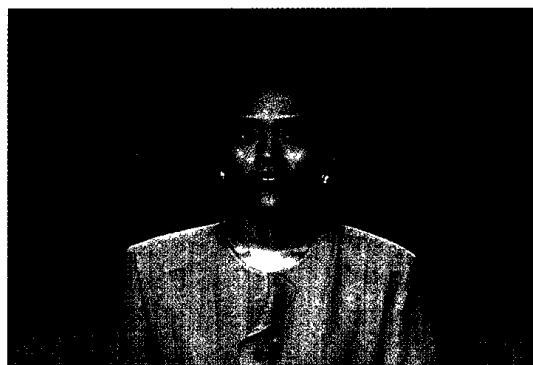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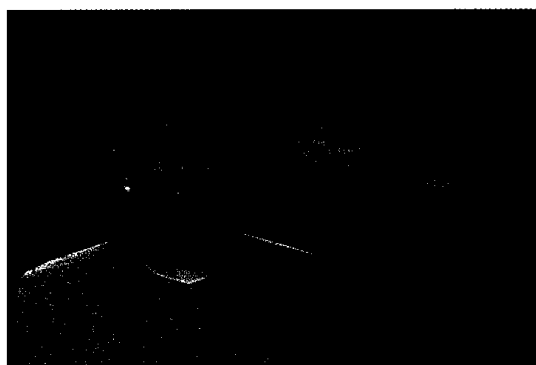
워졌다. 브라운 색의 섀도우를 자연스럽고 약하게 표현하였으며, 검정 펜슬을 사용하였고, 루즈는 레드가 섞인 갈색계열을 사용하였다.

피부 표현은 조금 자연스러워졌지만 섀딩이 강해서 목색과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 있다.



<사진 11> 1994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994년 KBS 앵커 메이크업의 특징으로는 다소 안정되어 보이는 메이크업이라는 점이다. 눈썹이 얇고 눈썹산이 살짝 그려졌으며, 섀도우는 갈색을 사용하였고, 약하게 코선과 연결되어 있다. 아이라인에 포인트를 주었고 끝마무리를 살짝 올라가게 하였다. 갈색과 붉은빛 루즈를 사용하였으며, 섀딩을 사용하였다.



<사진 12> 1994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5) 1995년 메이크업

1995년에는 3,40년대의 복고풍의 패션경향으로 이에 어울리는 밝은 얼굴톤에 가느다란 곡선의 진하고 긴 눈썹에 눈매의 강조 메이크업이 유행이었으며 진의 유행과 밀리터리 감각의 등장으로 어두운 녹색, 보라색, 빨강색 등이 유행색상으로 등장하였다. 진의 유행으로 다채로운 파랑색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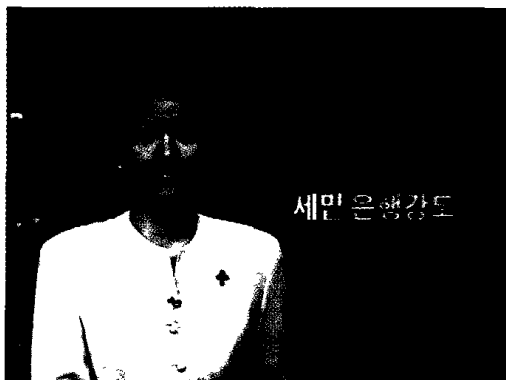
1995년 SBS 앵커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는 메이크업이 느껴진다. 눈썹이 짙고 길며, 코선이 많이 부드러워졌다. 전체 색도우는 약하고 포인트 컬러를 이용하였다.

아이펜슬로 눈 라인을 강조하였고, 루즈색이 갈색, 레드 등 다양하다. 앵커의 텍선이 강해서인지 아직까지는 새당이 강하다.



<사진 13> 1995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995년 KBS 여성 앵커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베이스가 환하다는 점이다. 기본형에 가까운 눈썹이기는 하나 진하게 그려서 자연스러움이 부족하다. 섀도우는 약하고 윗쪽 아이라인을 강하게 그려 눈에 선명함을 강조하였고, 루즈는 붉은색과 분홍색 부드러운 볼터치가 아닌 볼에 사선으로 섀딩이 보인다.



<사진 14> 1995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12월)

6) 1996년 메이크업

1996년에는 패션에서 유머, 아이러니, 현대주의라는 3차원의 주제가 제안되었는데 메이크업에서는 달콤한 파스텔, 어두운 색조가 현대적으로 연출이 되었다. 또한 60년대의 만화 이미지와 순수와 유머를 추구하려는 패션경향에 따라서 메이크업에서는 바로크적 과장됨과 부르조아적 고급스러움을 나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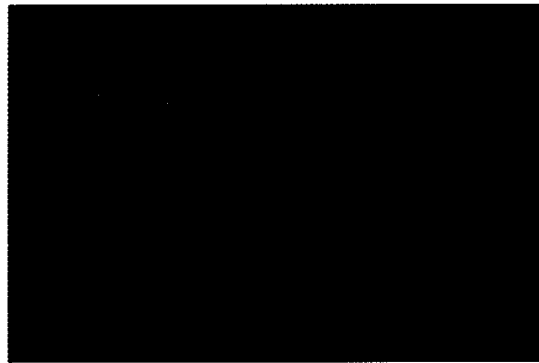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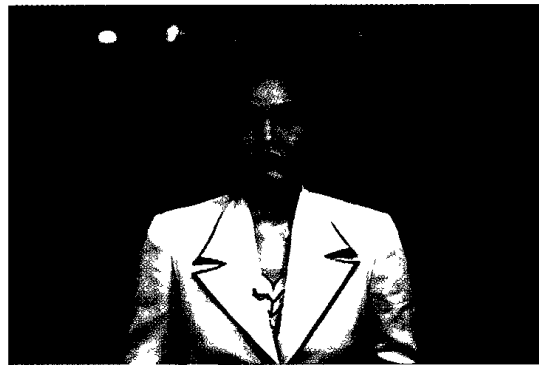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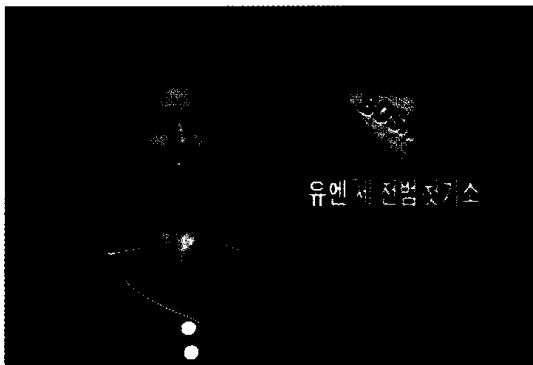
려고 하였다.

1996년 SBS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얼굴에 전체적인 조화가 느껴지게 메이크업을 하였다는 점인데, 눈썹은 짙고 딱딱해 보인다. 갈색 섀도우는 약하게 바르고 아이라인 위주로 포인트를 주었다. 루즈는 레드 갈색을 사용하였으며, 와인빛 티존에 새딩이 강하다.



<사진 15> 1996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996년 KBS 여성 앵커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베이스가 강하고 황현정의 경우 턱선쪽에 새딩이 강하다. 이목구비가 안쪽으로 몰려있는데 메이크업 자체가 더 안쪽으로 쏠리게 보이게 했다. 눈썹색이 약간 흐려졌으며 새도우는 약하고 아이라인을 진하고 약간 빼서 그렸는데 아래쪽 아이라인과 연결된다. 붉은계열과 진갈색 루즈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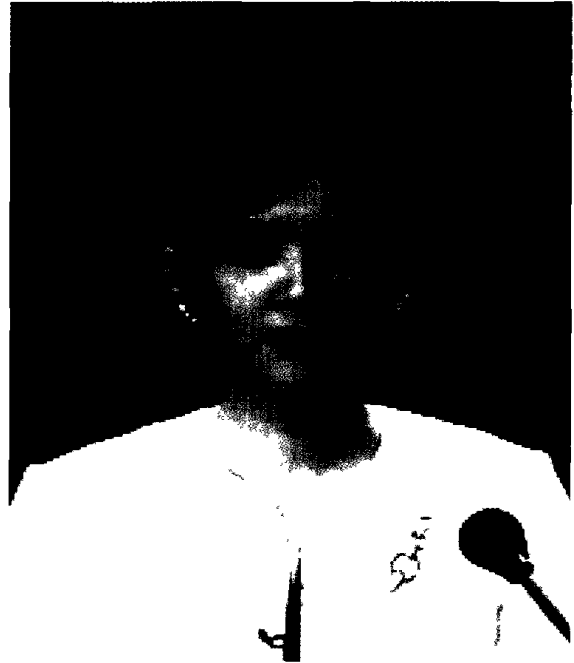


<사진 16> 1996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7) 1997년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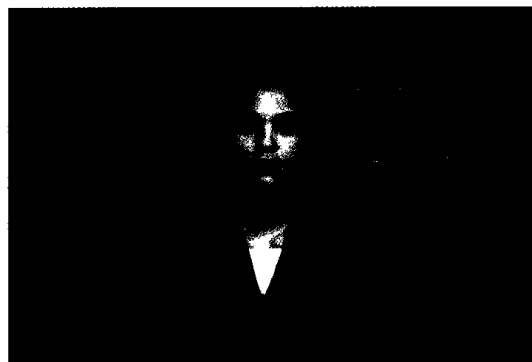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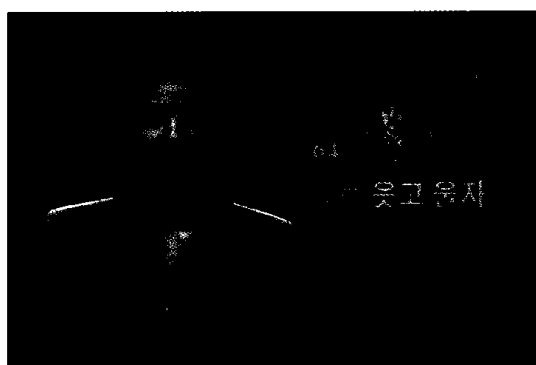
1997년 패션에서는 과거의 우아함 지향으로 60,70년대 비틀즈의 모즈록을 재현하였다. 이에 따라서 60년대 전통적인 분위기의 메이크업이 추구되었다. 따라서 검정색 메이크업과 그래피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1997년 SBS 여성 앵커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눈썹이 기본형에 가까워지면서 짧아졌다는 점이다. 섀도우보다는 눈 윗쪽 라인 위주에 포인트를 주었다. 루즈는 와인빛과 갈색 티존에 하이라이트와 섀딩이 강하다.



<사진 17> 1997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997년 KBS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베이스가 환하고 진하다는 점이다. 전체를 보았을 때 눈썹과 아이라인과 루즈가 진해서 메이크업이 강하게 보인다. 아이라인이 번지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매우 강하게 보인다. 루즈는 붉은색 계열을 사용하였고, 턱선에 새당이 강하다 샤도우는 약하고 코선과 연결되었다.



<사진 18> 1997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8) 1998년 메이크업

1998년에 보여진 메이크업 트렌드는 다양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임을 확연히 보여준다. 여성들에게는 독신적, 개성적이며 지성적인 새로운 여성이 여성상으로 부각된다.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짙은 컬러의 메이크업이 주류를 이룬다. 부드럽고 연한 톤의 창백한 이미지와 파우더를 뿌려놓은 투명한 피부표현으로 어두운 색조화장과 병행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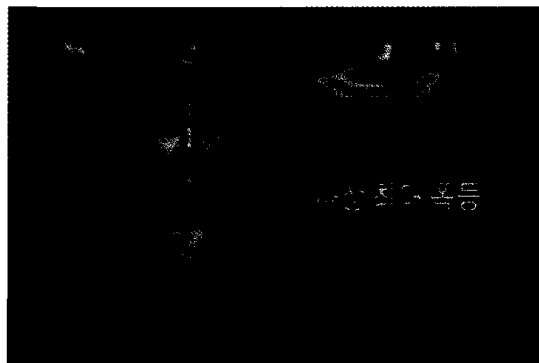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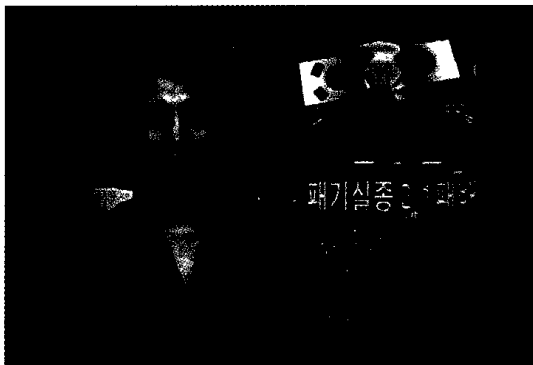
냉철하고 지적인 세련미를 표현할 수 있다.

1998년 SBS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베이스에 톤이 목 색과 비슷해졌고, 눈썹머리에 그라데이션이 보이며, 섀딩이 약해지고 얼굴 전체에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의상칼라와 새도우가 매치되었고, 갈색루즈에 펄을 사용하였다.



<사진 19> 1998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12월)

1998년 KBS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메이크업이 부드러워 보이기 시작했으며, 눈썹색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다. 색도우는 갈색으로 아주 약하게 표현되었고, 아이라인쪽 포인트는 강하게 보인다. 루즈는 붉은색을 사용하여 적은 입술을 조금 크게 표현하였다. 티존과 볼 부위가 많이 환하나 자연스럽게 연출되었다.



<사진 20> 1998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9) 1999년 메이크업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에서 직관적인 것으로, 인공에서 자연으로, 화려함에서 소박함으로 가치체계가 변화된 시기로 개성 표현이 중요해지는 시대상을 반영해주듯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모든 미추의 개념이 사라지고 철저히 자기대로의 표현만이 의미가 부여되어 독특한 화장법들이 고안되었다.

컬러에 있어서는 순수함의 근원을 상징하는 화이트 네추럴 그룹과 부드러운 세련미를 풍기는 라이트 그레이쉬 그룹, 보다 자연 친화적인 컬러를 추구

하였으며, 매트하거나 샤이니하고 글로시한 텍스춰의 대비에 따라 표현 효과의 다양성이 추구되어 적은 컬러로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었다.

1999년 SBS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피부톤이 자연스러워졌으며, 눈썹모양이 튀거나 진하지 않고 아주 무난하게 표현되었고 가볍게 색이 있는 섀도우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섀도우보다는 아이라인이 강조되었고, 브라운계열의 립스틱을 사용하였다.



<사진 21> 1999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12월)

1999년 KBS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베이스는 환하고, 눈썹은 얇아지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또한 섀도우는 약하고 아이라인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루즈는 강하지 않다. 갈색 또는 레드브라운 등 텃선에 섀딩이 약해졌다. 황현정 앵커의 얼굴이 안으로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진 22> 1999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0) 2000년 메이크업

2000년 메이크업은 베어 메이크업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눈과 볼연지의 포인트를 준 세련된 느낌의 메이크업 경향으로 로맨틱 히피라는 패션 트렌드와 같은 이미지로 아이라인이 강조된 메이크업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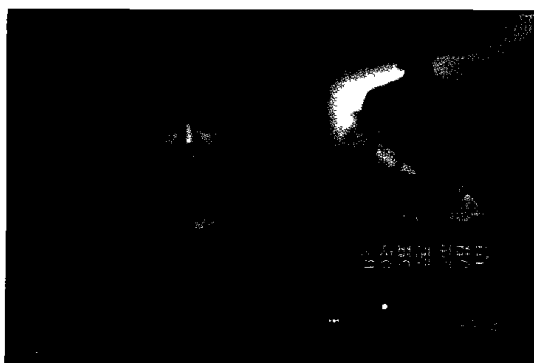
2000년 SBS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피부톤이 목색과 일치되어 보이고, 인위적인 눈썹보다는 앵커의 눈썹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는 점이

다. 약한 갈색새도우와 색이 있는 새도우를 사용하였고, 윗쪽 아이라인에 포인트를 주었다. 루즈는 은은한 갈색필 또는 의상색과 매치되게 하였다.



<사진 23> 2000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2000년 KBS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베이스는 환하고 눈썹은 기본형에 가까우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었다. 선이 느껴질 정도에 섀딩은 없고 가볍게 터치한 정도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눈썹과 루즈에는 포인트를 주었다. 아이라인은 계속 포인트를 주었으며, 아래쪽은 아이라인이 보이지 않는다. 입술은 자연스러운 갈색이나 붉은계열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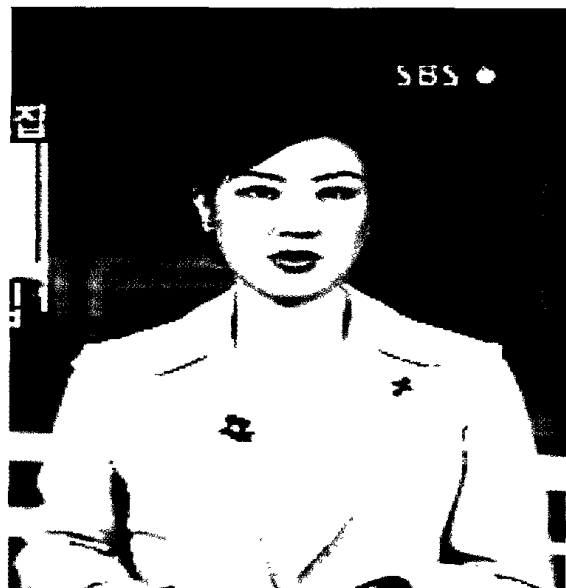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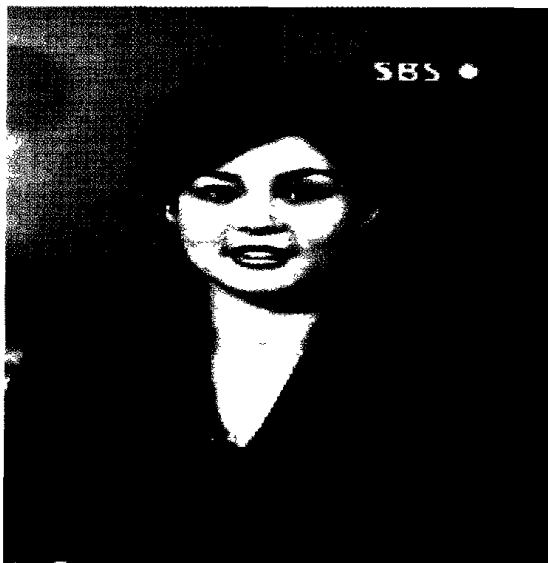
<사진 24> 2000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1) 2001년 메이크업

2001년 미인들의 테마는 보보스다. 부유하면서도 그다지 사치스럽지 않고 보헤미안적 예술감각을 지닌 소유자들의 삶의 패턴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매트한 피부톤에 비교적 글로시한 타입보다는 연한 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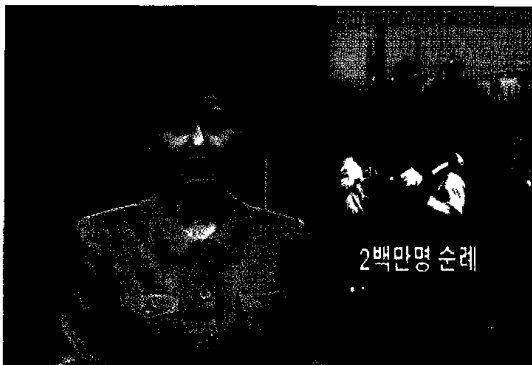
라운톤으로 섬세하고 우아한 눈매를 연출하며 선명한 입술로 개성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담아 내는게 특징이다.

2001년 SBS 여성 앵커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며, 여성앵커의 얼굴을 그대로 살리는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색도우는 특정한 포인트 색보다 자연스런 색으로 표현하고 아이라인은 강하게 표현되었다.



<사진 25> 2001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2001년 KBS 여성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강하지 않고 튀지 않는 메이크업으로 의상의 색이 선명하고 환해졌으며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내추럴하게 보인다. 눈썹에 그라데이션이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었고, 약한 새도우 윗쪽 아이라인 포인트 베이스는 환하다. 루즈는 의상색에 따라 틀려진다. 신선함이 느껴지며, 딱딱함이 없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진 26> 2001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9월, 12월)

12) 2002년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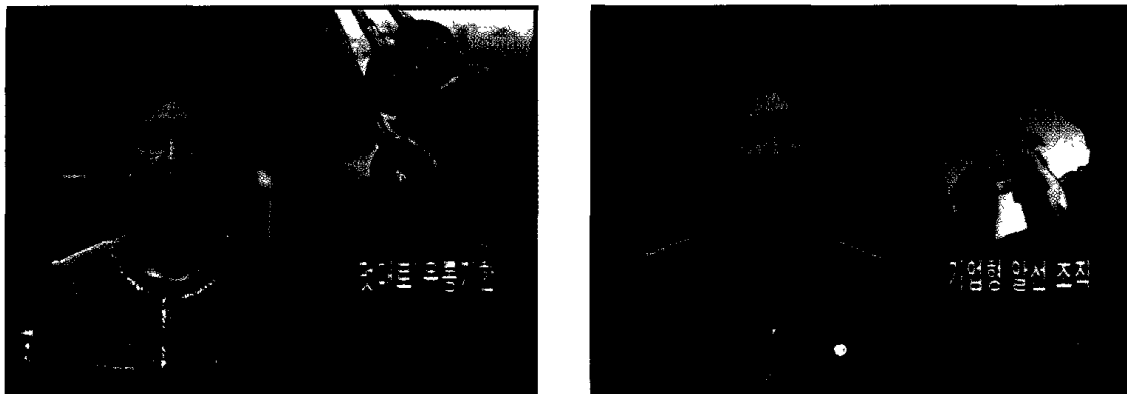
2002년에는 ‘핑크’와 ‘오렌지’의 대결로 밝고 화사한 칼라를 메인으로 내세우며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던 메이크업 경향에서 탈피하여 감성적인 소녀 같은 여성상을 형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엷은 노란색, 연두색, 신선한 오렌지색, 핑크색들의 아이섀도우, 립스틱도 오렌지 핑크 등 부드러운 색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2년 SBS 여성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환하고 세련되어졌으며, 은은한 섀도우 색과 볼터치 그리고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사진 27> 2002년 S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사진 28> 2002년 KBS 여성 앵커(좌상부터 시계방향으로 3월, 6월)

위에서 살펴본 여성앵커의 메이크업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에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메이크업이 2000년대 와서는 환하고 세련되어졌으며,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SBS 여성 앵커 메이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며, 여성앵커의 얼굴을 그대로 살리는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으로 표현되고 있고, 기존의 앵커 이미지를 벗어난 일반 연예인에 가까운 뷰티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피부표현에 있어 진했던 화운데이션이 자연스러워졌다.

셋째, 눈썹 형태가 변화되었는데 예전보다 짧아지고 흐려졌으며, 기본형 눈썹이 많이 나타났다. 그라데이션시켜서 자연스러워졌으며, 특히 인위적인 눈썹형태보다는 본인의 눈썹을 살려서 표현하고 있는게 특징이다.

넷째, 입술표현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보완되는 메이크업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위의 아이라인의 경우는 변화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진하게 표현되었다.

2. 여성앵커 대상 설문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은 2003년 4월 현재 KBS와 SBS에 근무하는 여성앵커 22명으로 하였으며, KBS소속 14명, SBS소속 8명이다.

조사대상 앵커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30대의 경우가 12명(54.5%)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8명(36.4%), 40대가 2명(9.1%)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12명(54.5%)로 기혼 8명(36.4%)보다 많았다.

앵커활동기간으로는 2~5년 사이가 6명(27.3%)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빈도	%
연령	20대	8	36.4
	30대	12	54.5
	40대	2	9.1
결혼여부	미혼	12	54.5
	기혼	8	36.4
	무응답	2	9.1
앵커활동기간	1년 이하	5	22.7
	2~5년	6	27.3
	6~10년	5	22.7
	10년 이상	5	22.7
	무응답	1	4.5
합계		22	100.0

한달수입을 살펴보면 200만~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6명(27.3%)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명(13.6%)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에 드는 한달 비용은 20만~30만원 미만의 경우가 4명(1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빈도	%
한달 수입	100만~200만원 미만	1	4.5
	200만~300만원 미만	6	27.3
	300만~400만원 미만	3	13.6
	400만원 이상	1	4.5
	무응답	11	50.0
메이크업에 드는 한달 비용	10만~20만원 미만	2	9.1
	20만~30만원 미만	4	18.2
	30만~40만원 미만	2	9.1
	40만원 이상	2	9.1
	무응답	12	54.5
Total		22	100.0

피부색을 보면 흰피부가 10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란피부는 9명(40.9%)으로 나타났다. 피부상태는 혼합형이 16명(72.7%)으로 가장 많았다.

외모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귀엽고 순수하다가 7명(31.8%)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로는 내추럴한 이미지가 8명(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클리어 5명(22.7%)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빈도	%
피부색	흰 피부	10	45.5
	핑크 빛 피부	3	13.6
	노란 피부	9	40.9
피부상태	건성	4	18.2
	지성	2	9.1
	혼합형	16	72.7
외모	지적이다	11	50.0
	귀엽고 순수하다	7	31.8
	건강하다	2	9.1
	무응답	2	9.1
이미지	내추럴	8	36.4
	클리어	5	22.7
	프리티	1	4.5
	스포티	1	4.5
	클래식	1	4.5
	로맨틱	1	4.5
	페미닌	1	4.5
	엘리전트	2	9.1
	무응답	2	9.1

2) 화장품 구입 관련 사항

화장품 구입기준으로는 ‘품질의 신뢰’를 1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랜드가 4명(18.2%), ‘주위권유’, ‘유행하는 색깔’, ‘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경로로는 백화점이 19명(86.4%)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화장품전문매장,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종류와 협찬으로는 skⅡ 샤넬, 비오템, 라네즈, 아이오페, 태평양,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품목별로 좋은걸 골라서), 시슬리, 부르조아, 맥,

크리스찬디올, VICHY(협찬) 시세이도 등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으로는 주위 동료로부터가 10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패션잡지가 6명(27.3%), 여성잡지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화장품 구입 관련 사항

		빈도	%
화장품구입기준	유행하는 색깔	3	13.6
	브랜드	4	18.2
	광고	1	4.5
	품질신뢰	11	50.0
	주위권유	3	13.6
화장품 구입경로	백화점/슈퍼	19	86.4
	화장품전문매장	1	4.5
	기타	2	9.1
화장품에 대한 정보	여성잡지	3	13.6
	패션잡지	6	27.3
	주위동료	10	45.5
	회사판촉물	1	4.5
	기타	2	9.0

3) 방송용 메이크업에 대한 만족도

화장품 색상으로는 자신의 피부에 맞는 색을 구입하는 경우가 1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위기 연출을 위해 필요한 색이 7명(31.8%), 평소에 좋아하는 색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용 메이크업은 누가 하는가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한다가 1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와 본인과 아티스트가 하는

경우가 각각 4명(18.2%)으로 나타났다.

전문 아티스트가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 본인이 했을 때와의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더 전문적이고, 자연스럽다. 정교하다. 바탕이 탄탄하고, 눈 연출이 자연스럽고 시원하고 크고 예쁘다, 눈이 작게 표현된다. 뒤통마리가 깔끔하다, 눈썹 눈모양이 정확하고 깔끔하다. 테크닉이 가미된 눈화장법이 다르다. 화장이 오래간다, 이목구비가 더 분명히 표현된다. 개성이 살아난다.”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용 메이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1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스럽다가 9명(40.9%), 매우 만족스럽다가 1명(4.5%) 등으로 대답해 여성앵커들의 방송용 메이크업에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개인의 특성을 못 살린다. 커버가 부족하다. 간혹 눈화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진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6>메이크업에 대한 만족도

		빈도	%
화장품 색상	평소좋아하는 색	4	18.2
	나의 피부에 맞는색	11	50.0
	분위기 연출을 위해 필요한 색	7	31.8
메이크업	본인이 직접한다	4	18.2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한다	13	59.1
	기타	1	4.5
	본인과 아티스트	4	18.2
메이크업 만족도	보통이다	11	50.0
	만족스럽다	9	40.9
	매우 만족스럽다	1	4.5
	무응답	1	4.5

4) 피부표현 메이크업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메이크업베이스 색상으로는 그린색이 1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이지, 블루, 보라 순으로 나타났다.

파운데이션 색상으로는 베이지계가 13명(59.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라이트계, 핑크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피부표현 메이크업 1

		빈도	%
메이크업베이스 색상	그린	11	50.0
	블루	2	9.1
	핑크	1	4.5
	보라	2	9.1
	오렌지	1	4.5
	베이지	3	13.6
	화이트	1	4.5
	무응답	1	4.5
파운데이션 색상	라이트계	6	27.3
	핑크계	2	9.1
	베이지계	13	59.1
	무응답	1	4.5
Total		22	100.0

파우더 색상으로는 투명이 10명(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베이지가 6명(27.3%), 화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블러셔의 색상으로는 핑크계가 13명(59.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이 오렌지, 브라운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피부표현 메이크업 2

구분		빈도	%
파우더 색상	옐로우	1	4.5
	핑크	1	4.5
	화이트	2	9.1
	투명	10	45.5
	베이지	6	27.3
	무응답	2	9.0
블러셔 색상	핑크계	13	59.1
	오렌지계	5	22.7
	브라운계	2	9.1
	무응답	2	9.1
합계		22	100.0

5) 눈썹 메이크업

먼저 눈썹 형태로는 표준눈썹이 13명(59.1%)으로 가장 많았고, 아치형 눈썹이 5명(22.7%), 각진눈썹, 올라간 눈썹 순으로 나타났다.

눈썹 색상으로는 갈색이 17명(7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색, 검정색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눈썹 메이크업

		빈도	%
눈썹 형태	표준눈썹	13	59.1
	올라간 눈썹	1	4.5
	아치형 눈썹	5	22.7
	각진 눈썹	2	9.1
	무응답	1	4.5
눈썹 색상	회색	2	9.1
	검정색	1	4.5
	갈색	17	77.3
	무응답	2	9.1
합계		22	100.0

6) 눈과 입술 메이크업

아이섀도우 색상으로는 오렌지색과 분홍색이 각각 6명(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랑색, 보라색순으로 나타났다.

립스틱 색상으로는 핑크가 10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 브라운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눈과 입술메이크업

		빈도	%
아이섀도우 색상	파랑색	3	13.6
	보라색	3	13.6
	오렌지색	6	27.3
	갈색	2	9.1
	분홍색	6	27.3
	무응답	2	9.1
립스틱 색상	핑크	10	45.5
	오렌지	6	27.3
	브라운	4	18.2
	무응답	2	9.1
합계		22	100.0

7) 방송용 메이크업의 제안

마지막으로 여성앵커들의 방송용 메이크업에 대한 제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 피부표현을 더욱 자연스럽게 했으면 그리고 이목구비는 뚜렷하게 하고 좀더 꼼꼼했으면 좋겠다.
- 내추럴 톤이 가장 좋다고 본다, 칙칙하지 않는 밝은 메이크업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무 형식적인 메이크업이 아닌 요즘 시대에 맞춰서 본인의 스타일과 얼굴형과 개성에 따라 뷰티 메이크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 아나운서의 굳은 이미지로 인해 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

질 때가 많다. 아나운서들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살려주는 뷰티메이크업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 예전 방송메이크업과는 지금의 메이크업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두꺼웠던 메이크업보다는 자연스러워진 메이크업이 만족스럽다.

- 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한다. TV메이크업이 대체로 진하고 칙칙하다.

V. TV 여성앵커의 메이크업 제안

본 장에서는 1992년에서 2002년까지 앵커들의 메이크업 특징 분석과 설문
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TV 여성앵커의 메이크업을
작품으로 제시하였다.

여성앵커 메이크업의 중요한 핵심은 개성을 살린 자연스런 표현에 있으
며, 메이크업 컬러의 선택은 의상, 헤어, 피부 그리고 계절감각에 맞게 하여
야 하며 네일(Nail)과 액세서리의 마무리까지 조화롭게 코디네이션하여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 여성앵커의 메이크업을 KBS와 SBS로 나누어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뉴스메이크업의 특성은 메이크업의 간결성과 뉴스진
행자의 개성미를 중시한 차별성, 현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행의 적절한 수용
을 의미하는 대중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으
로 제시하였는데, KBS의 경우 지적인 이미지에 신뢰감 있는 메이크업에 비
중을 두었다. SBS의 경우 유행의 적절한 수용을 의미하는 대중성을 가미하
여 뷰티메이크업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으며 채널간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1. 제안 의도

이상의 이론과 실증적 측면에서 본 분석들을 근거로 본 연구의 작품 제안은 현대사회의 TV뉴스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라 진행자에게 기대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뉴스 진행자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통해 이상적인 메이크업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으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의 메이크업으로 이복구비는 뚜렷하고, 꼼꼼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내추럴 톤에, 칙칙하지 않는 밝은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지적인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평범해 보이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앵커의 품위를 연출할 수 있도록 내추럴하고 클리어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너무 형식적인 메이크업이 아닌 뷰티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KBS와 SBS의 앵커의 이미지를 차별화 시켜보고자 하였다.

현재 뉴스진행자의 메이크업은 또한 이론적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며 연출 방법 또한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기획단계를 거친 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작품 제시

1) KBS 봄

가. 작품의도

봄 메이크업의 이미지는 싱그러움과 생동감이다. 한 부분을 강조하기보다 자연스러워야 하며 어울리는 색상은 라이트 옐로우, 오렌지 레드, 옐로우 그린 핑크 등이다.

따라서 본 작업에서는 핑크 톤을 사용함으로써 봄의 화사함과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메이크업으로 당찬 직업여성의 아름다움과 싱그러움, 생동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 메이크업

메이크업으로는 먼저, 아이보리 섀도우로 베이스를 하였다. 눈 메이크업으로는 핑크 톤이 들어간 흐린 핑크로 눈두덩이를 표현하였으며 짙은 핑크로 쌍꺼풀 라인과 포인트를 주었다. 눈 위라인과 아랫라인에 검정과 회색 섀도우로 살짝 명암을 주고 눈썹을 붙였다. 눈썹메이크업은 에보니 펜슬과 갈색섀도우를 섞어 본인의 눈썹을 살려주었다. 붉은색과 핑크를 섞어 그라데이션으로 음영을 주어 볼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립 메이크업은 핑크색 립글로스를 사용하

였다.



<작품 1> KBS 봄(정면)



<작품 1> KBS 봄(측면)

2) KBS 여름

가. 작품의도

여름 메이크업은 짙은 메이크업은 더운 느낌을 주므로 피부색은 투명하게 하고 시원한 이미지를 연출해 준다.

하얀 피부에 에메랄드 빛과 푸른빛으로 하여 시원한 바다 빛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얀 피부톤에 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귀여운 이미지와 차분함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 메이크업

아이보리 섀도우로 베이스를 바르고, 펄이 들어간 연한 하늘색 섀도우로 눈두덩이를 바른 후 눈 앞부분은 흰색펄로 화사함을 표현하였고 쌍꺼풀라인과 눈꼬리에 짙은 파랑으로 포인트를 주어 눈 메이크업을 하였다.

눈 위라인과 아랫라인에 검정과 회색 섀도우로 살짝 명암을 주고 눈썹을 붙였다. 눈썹메이크업은 에보니 펜슬과 갈색섀도우를 섞어 본인의 눈썹을 살려주었다.

T존과 눈밑에 흰색펄 섀도우로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다홍색으로 볼메이크업을 하였으며, 립 메이크업은 입술색과 같은 펜슬로 라인을 그려준 후 투명 립글로스를 사용하였다.



<작품 2> KBS 여름(정면)



<작품 2> KBS 여름(측면)

3) KBS 가을

가. 작품 의도

가을 메이크업은 성숙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계절이므로 눈매를 깊이 있게 표현하고 톤의 강약을 조절해 생동감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가을 분위기의 옅은 브라운에 골드 펄의 느낌으로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나. 메이크업

메이크업으로는 먼저, 피부색을 안정감 있게 올리브 베이지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아이보리 섀도우로 베이스를 바르고 펄이 들어간 연한노랑과 짙은 노랑 섞어서 눈두덩이를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펄이 들어간 연한 브라운 섀도우를 쌍꺼풀 위라인까지 펴 발라서 눈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쌍꺼풀라인과 눈꼬리를 짙은 브라운 섀도우로 포인트를 주었다.

눈 위라인과 아랫라인에 검정과 회색 섀도우로 살짝 명암을 주고 눈썹을 붙였다. 눈썹메이크업은 에보니 펜슬과 갈색섀도우를 섞어 본인의 눈썹을 살려주었으며, 앞머리에 갈색 섀도우 터치를 해주었다.

전체적으로 브러쉬로 약하게 쓸어주었으며, 브라운으로 볼 메이크업을 하였다. 립 메이크업은 짙은 브라운 립으로 라인을 그려주고 산호색 립글로스로 라인과 섞어가며 발라주었다. 라인쪽은 짙고 안쪽으로 갈수록 산호색이 밝아지게 하였다.



<작품 3> KBS 가을(정면)



<작품 3> KBS 가을(측면)

4) KBS 겨울

가. 작품 의도

겨울 메이크업은 화려하고 여성적인 매력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계절이므로 전체적인 느낌이 깨끗하고 심플한 느낌이 되도록 표현한다.

하얀 피부에 핑크 립으로 밝고 경쾌한 인상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 메이크업

아이보리 섀도우로 베이스를 바르고 펄이 들어간 연한 펄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펴 바른 후 와인색과 브라운 섀도우를 섞어서 눈꼬리부터 안쪽으로 그라데이션해서 펴 발라주어 눈 메이크업을 하였다. 눈꼬리 부분에 와인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눈 위라인과 아랫라인에 검정과 회색 섀도우로 살짝 명암을 주고 눈썹을 붙였다. 눈썹메이크업은 에보니 펜슬과 갈색섀도우를 섞어 본인의 눈썹을 살려주었다.

섀도우가 짙어 특별히 볼터치는 하지 않았고, 깨끗한 피부정돈을 위해 분홍칼라 파우더를 사용하였다. 립 메이크업은 갈색 립펜슬로 입술선을 그려주고 누드 연한핑크 립글로스로 입술에 촉촉함을 주었다.



<작품 4> KBS 겨울(정면)



<작품 4> KBS 겨울(측면)

5) SBS 봄

가. 작품 의도

연노랑의 따뜻한 이미지와 핑크의 화사함으로 겨울이 끝나고 온 따뜻하고 밝은 봄의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귀여운 느낌의 경쾌한 짧은 컬 느낌의 헤어스타일로 톡톡 튀는 신세대 앵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 메이크업

아이보리 섀도우로 베이스를 하였고, 펄 연노랑으로 눈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주황색 섀도우로 포인트를 주었다. 언더라인 눈 밑 끝 부분에서 살짝 포인트를 더해주었다.

검정과 회색 섀도우로 눈썹라인과 언더라인에 빈공간을 채워주었으며, 눈썹을 붙이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하였다.

볼 메이크업은 다홍빛 섀도우로 S자로 그라데이션 하였으며, 핑크파우더로 T존과 V존에 발라서 화사함을 표현하였다.

립 메이크업은 오렌지색으로 립라인을 그려주고 오렌지펄 립글로스와 빨간 립글로스를 섞어서 촉촉한 입술을 표현하였다.



<작품 5> SBS 봄(정면)



<작품 5> SBS 봄(측면)

6) SBS 여름

가. 작품 의도

화이트와 청녹색 섀도우를 사용하여 여름 분위기에 맞게 시원하게 표현하고자 하였고, 너무 원색 느낌의 섀도우를 피해 자칫 가벼워 보이지 않게 주의하였으며, 립 메이크업을 옅은 오렌지와 글로스로 사용해 밝은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나. 메이크업

피부표현은 환하게 하였다. 아이보리 섀도우로 베이스를 하였고, 연두색으로 아이클과 언더라인까지 발라주었으며, 초록(짙은 연두)로 쌍꺼풀 위까지 발라서 눈 메이크업을 하였다. 언더라인은 노란필과 연두색을 사용하였으며, 눈 앞부분에 흰색필을 사용하였다. 청녹색 섀도우로 눈꼬리 부분에 포인트를 주었다.

검정과 회색 섀도우로 눈썹라인과 언더라인에 빈공간을 채워주었으며, 눈썹을 붙이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하였다.

볼 메이크업으로는 살구빛이 살짝 놀게 했고 T존과 V존 부위에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립 메이크업은 오렌지 립스틱과 오렌지 필글로스를 섞어서 사용하였다.



<작품 6> SBS 여름(정면)



<작품 6> SBS 여름(측면)

7) SBS 가을

가. 작품 의도

가을 하늘처럼 맑은 느낌으로 차분하고 맑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지적이 고 차분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 메이크업

아이보리 섀도우로 베이스를 하였으며, 흐린 팔죽색으로 쌍꺼풀 위까지 펴 발라주었다. 눈밑 언더라인도 펄이든 짙은 레드 브라운으로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주었으며, 핑크 베이지 섀도우로 섀도우 발랐던 라인을 펴주어 눈 메이크업을 하였다. 다크 핑크와 보라 섀도우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짙은 갈색으로 언더라인을 하였다.

검정과 회색 섀도우로 눈썹라인과 언더라인에 빈공간을 채워주었으며, 눈썹을 붙이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하였다.

볼터치는 갈색으로 S자형으로 하였으며, T존과 V존에 핑크 파우더로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볼 메이크업을 하였다.

립 메이크업으로는 립라인은 갈색으로 하였고 립선은 다크갈색으로 표현하였다. 안쪽으로는 밝은 펄 베이지로 표현하여 입술에 볼륨감을 주었다.



<작품 7> SBS 가을(정면)



<작품 7> SBS 가을(측면)

8) SBS 겨울

가. 작품 의도

겨울 메이크업은 차분하고 강렬한 차가운 계열의 컬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즉 은색, 블루, 핑크톤이 주가 된다.

따라서 본 작업에서는 생생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빨간빛이 도는 새도우에 난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반짝이는 핑크로 입술을 표현하여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 메이크업

메이크업으로는 아이보리 새도우로 베이스를 하였으며, 펠이든 흰색 새도우로 눈두덩이를 발라주었다. 펠이든 연보라와 연보라를 섞어 쌍꺼플 부분에 발라 눈 메이크업을 하였다.

검정과 회색 새도우로 눈썹라인과 언더라인에 빈공간을 채워주었으며, 눈썹을 붙이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하였다. 눈썹 뼈 부분에는 흰색펄 새도우를 사용하였다.

볼터치는 빨간빛이 도는 새도우로 살짝 터치하여 홍조 뽀얀 느낌을 살려주었으며, T존과 V존은 펠이든 흰색 새도우로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립 메이크업은 보라핑크로 겉을 바르고 핑크펄로 안쪽을 표현하였다.



<작품 8> SBS 겨울(정면)



<작품 8> SBS 겨울(측면)

VI. 결론

오늘날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뉴스와 정보를 접하는 현대인들에게 TV뉴스는 어떤 매체보다도 중요한 정보원으로 존재하며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진행자 또한 현대인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친다.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의 뉴스 룬은 남녀평등의 시대를 맞이하고 생활뉴스와 날씨를 읽던 여성진행자의 모습이 주요 뉴스를 담당하는 전문 앵커의 이미지로 변화하면서 여성진행자의 역할은 점차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TV 메이크업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국내 방송사 즉, 1992년에서 2002년까지의 KBS와 SBS의 뉴스진행자의 메이크업 특징 분석 및 여성 앵커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일관적이고 고정된 앵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각 개인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 컨셉과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뉴스메이크업의 특성은 메이크업의 간결성과 뉴스진행자의 개성미를 중시한 차별성, 현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행의 적절한 수용을 의미하는 대중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으로 제시하였는데, KBS의 경우 지적인 이미지에 신뢰감 있는 메이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SBS의 경우 유행의 적절한 수용을 의미하는 대중성을 가미하여 뷰티메이크업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였으며 채널간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2년에서 2002년까지의 KBS와 SBS의 뉴스진행자의 메이크업 특징으로는 첫째, 1990년대에는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던 메이크업이 2000년대 와서는 환하고 세련되어졌으며,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SBS 여성 앵커 메이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며, 여성앵커의 얼굴을 그대로 살리는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으로 표현되고 있고, 기존의 앵커 이미지를 벗어난 일반 연예인에 가까운 뷰티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피부표현에 있어 진했던 화운데이션이 자연스러워졌다.

셋째, 눈썹 형태가 변화되었는데 예전보다 짧아지고 호려졌으며, 기본형에 가깝고, 그라데이션시켜서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인위적인 눈썹형태보다는 본인의 눈썹을 살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입술표현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에 맞게 보완되는 메이크업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위의 아이라인의 경우는 변화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진하게 표현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분석 결과 방송용 메이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제안되었다.

- 피부표현을 더욱 자연스럽게 했으면 그리고 이목구비는 뚜렷하게 하고 좀더 꼼꼼했으면 좋겠다.
- 또한 내추럴 톤이 가장 좋다고 본다.
- 칙칙하지 않는 밝은 메이크업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 너무 형식적인 메이크업이 아닌 요즘 시대에 맞춰서 본인의 스타일과 얼굴형과 개성에 따라 뷰티 메이크업으로 바뀌어 져야 한다.

- 아나운서의 굳은 이미지로 인해 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질 때가 많다. 아나운서들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살려주는 뷰티메이크업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 예전 방송메이크업과는 지금의 메이크업이 많이 달라진 듯하다 두꺼웠던 메이크업보다는 자연스러워진 메이크업이 만족스럽다.

- TV메이크업이 대체로 진하고 칙칙하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한다.

따라서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앵커는 기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언론인으로서 차별화 된 여성앵커의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적인 이미지와 신뢰감 있는 메이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재현색으로서의 안정감과 수축색의 사용으로 여성앵커의 이미지를 더욱 섬세하게 연출하여야 한다.

둘째, TV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TV메이크업은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때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므로 색상 및 형태가 신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역할의 신뢰감을 좌우하는 것이 인물들의 메이크업시 자연스러움이다. 뉴스 전달자의 두꺼운 메이크업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연기자의 연기처럼 보여져 뉴스의 신뢰감이나 진실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른 아침 뉴스의 경우, 여자 아나운서의 지나친 색조 메이크업이나 결점수정 메이크업보다는 자신의 얼굴 중, 최대 장점 하나를 포인트로 살리는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인조 속눈썹이나 두꺼운 마스크라 두꺼운 아이라이너는 눈 주위에 그림자를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눈의 크기를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아이섀도우 색조는 최대한 자연스런 오렌지 갈색 계열의 제품을 쓰고, 립스틱의 색상은 상의의 색상과 색상계열을 맞춰야 세련되고 차분해 보인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여성 앵커의 메이크업 특성을 다룬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앵커에 대한 메이크업 특징을 조사,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앵커에 대한 메이크업 특징을 분석하면서 뉴스 프로그램, 방송사를 통제하지 못한 점과 둘째, 연구대상지역을 여건상 서울지역으로 한정시킴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대상인 앵커의 선정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하여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선진 외국의 앵커 메이크업을 비교하지 못했다.

앵커의 메이크업 특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구의 대상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방송사의 채널간 특성이 적은 상황에서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앵커의 이미지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앵커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앵커의 메이크업의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앵커의 메이크업 특성을 조사할 때는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대상과 연구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조사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간의 차이점도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 외국의 여성 앵커 메이크업 비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뉴스 진행자의 메이크업 연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획일화된 여성앵커의 이미지를 벗어나 전문 언론인으로서의 차별화 된 여성진행자의 메이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논문을 진행하면서 드라마, 쇼 등의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이미지 변화가 적은 뉴스메이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이미지와 아이টে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기획작업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현대인에게 어떠한 매체보다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TV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분야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대인, 『방송저널리즘의 대명사 댄래더』, MBC가이드, 1985.
- 강혜원, 『심리학』, 교문사, 1992.
- 김경순외 4인, 『MAKEUPⅡ』, 청구문화사, 2000.
- 김성길, 『방송진행소프트』, 한울, 1998.
- 김우룡, 『방송보도론』, 나남출판사, 1993.
-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대사전』, 나남출판사, 1990.
- 백선기 역, 『텔레비전 뉴스』, 한국방송개발원, 1997.
- 이민웅,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나남출판, 1996.
- 한명숙, 『마꾸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 뱅크 휘트모어/김석희 역, 『CNN』, 국제언론문화사, 1991.

<논문>

- 김성경, 아나운서의 방송출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1.
- 김수진,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1997.
- 김영경, “이집트 장식문양을 응용한 현대 아트 메이크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5.
- 김영난, 텔레비전 뉴스진행자의 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2001.

- 김재원, 대학생이 닮고 싶은 여성상 : 앵커우먼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 19권, 1998.
- 나선희, 앵커의 이미지와 화법이 뉴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1.
- 나선희, 앵커의 이미지와 화법이 뉴스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1.
- 박관민, TV뉴스 앵커에 대한 수용자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1.
- 아시아 여성 연구소, 한국과 일본의 TV 뉴스 분석결과 나타난 여성 차별 비교 <http://sookmyyung.ac.kr/~asianfem/gg/g4-frame.htm>.
- 이재현, 프로그램 편성, 시청자 이미지, 그리고 뉴스 시청행태, 방송문화연구, 1994.
- 이종낙, 한국 TV앵커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8.
- 임정섭, TV뉴스앵커의 공신력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 홍인자, 한국 화장문화의 연대기적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V News Anchor Women

- Focused on KBS and SBS Anchor Women

Choi, Hee Ja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V makeup theoretically and thereupon, analyze the makeup characteristics of the anchor women who worked for KBS and SBS from 1992 to 2002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reby, suggest some makeup concepts and designs whereby uniform and fixed anchor women image can be replaced with individualistic and unique ones.

For this purpose, basic theories about anchor women's makeup were established, and their makeups were differentiated for their unique images, and therewith, a systematic broadcasting makeup method was suggested for anchor women.

The news makeup suggested by this study may be characterized by simpleness, individuality, differentiation and popularity reflecting the

fashion of the time. In consideration of such characteristics, makeup works are presented. For KBS anchor women, the makeup is focused on an intellectual and reliable image, while the makeup for SBS anchor women is expressed as a beauty makeup added up by popularity reflecting the fashion of the time. In short, it was attempted to differentiate the makeups between two channels.

The suggestions for anchor women's makeup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since anchor women have an image of reporter or journalist, makeup for them needs to be focused on an intellectual image and a sense of reliability.

Second, since the audience respond very sensitively to TV makeups with development of TV technology, it is important to express its colors and forms more carefully.

Third, a sense of reliability on role must depend on natural makeup.

Fourth, it is desirable to avoid blue or green eye shadow, light red lip or dark purple lip stick.

Fifth, it is deemed desirable to use the most possible natural orange brown eye shadow color tones without any pearl, and match the lip stick colors with those of the jacket to look refined and calm. The recent fashionable makeup techniques or products (pearl, glossy type lip glosses) should be avoided.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TV 뉴스 진행자의 메이크업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되며 학문적인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질문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분장예술전공

석사과정 최희자

I. 일반적 사항

1.귀하의 연령은? ()세

2.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미혼 ②기혼

3. 귀하가 앵커로서 활동한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4. 귀하의 한달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만원

메이크업에 드는 한달 비용은 얼마정도 되십니까? ()만원

5. 귀하의 피부색은 어떤 색입니까?

① 흰 피부 ② 핑크 빛 피부 ③ 노란 피부 ④ 짙은 황갈색 피부

6. 귀하의 피부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건성 ② 지성 ③ 혼합형

7. 귀하의 현재 외모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력적이다 ② 지적이다 ③ 섹시하다 ④ 귀엽고 순수하다 ⑤ 건강하다

7-1. 귀하의 이미지는?

① 내추럴 ② 클리어 ③ 프리티 ④ 스포티 ⑤ 클래식 ⑥ 로맨틱 ⑦ 페미닌

⑧ 엘리전트 ⑨ 클래머러스 ⑩ 고저스

8. 귀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실 때 어디에 기준을 두십니까?

① 유행하는 색깔 ② 브랜드 ③ 디자인 ④ 광고 ⑤ 가격 ⑥ 품질신뢰 ⑦ 주
위권유 ⑧ 판매원 ⑨ 기타()

9. 귀하의 화장품 구입경로는?

① 직영점(대리점) ② 판매원 ③ 백화점/슈퍼 ④ 할인코너 ⑤ 화장품전문매장 ⑥ 기타()

10. 귀하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TV, 라디오 광고 ② 여성잡지 ③ 패션잡지 ④ 주위동료 ⑤ 회사판촉물
⑥ 뷰티살롱 ⑦기타()

11. 귀하는 화장품 색상선택시 어떻게 하십니까?

- ① 평소좋아하는 색 ② 구매시 유행색 ③ 나의 피부에 맞는색 ④분위기 연출을 위해 필요한색 ⑤ 기타()

12. 귀하의 방송을 위한 메이크업은 누가 하십니까?

- ① 본인이 직접 한다 ②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한다. ③ 기타()

13. 만약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했다면 본인이 직접 했을 때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14. 귀하의 방송용 메이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럽다 ② 불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14-1. 만약 불만족스럽다면 어떠한 면이 불만족스럽습니까?

()

15. 화장품의 종류는? 만약 협찬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

II. 메이크업 표현

다음은 메이크업하실 때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송용 메이크업을 하셨을 때를 생각하시어 답해 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피부표현>

1. 메이크업베이스 색상 선택

① 그린 ② 블루 ③ 핑크 ④ 보라 ⑤ 오렌지 ⑥ 베이지 ⑦ 화이트

2. 파운데이션 색상

① 라이트계 ② 핑크계 ③ 베이지계 ④ 오키계 ⑤ 브라운계

3. 파우더 색상

① 옐로우 ② 바이올렛 ③ 핑크 ④ 화이트 ⑤ 투명 ⑥ 베이지 ⑦ 브라운

4. 블러셔의 색상

① 핑크계 ② 오렌지계 ③ 브라운계 ④ 레드계

<눈썹메이크업>

1. 눈썹형태는

① 표준눈썹 ② 직선적인 눈썹 ③ 올라간 눈썹 ④ 아치형눈썹 ⑤ 각진눈썹

2. 눈썹 색상 선택

① 회색 ② 검정색 ③ 갈색

<눈 메이크업>

1. 아이섀도우 색상

① 초록색 ② 파랑색 ③ 보라색 ④ 오렌지색 ⑤ 갈색 ⑥ 분홍색 ⑦ 회색 ⑧
검정색 ⑨ 노란색 ⑩ 빨간색

<입술 메이크업>

1. 립스틱 색

① 핑크 ② 레드 ③ 오렌지 ④ 퍼플 ⑤ 브라운

마지막으로 방송용 메이크업에 대한 제안을 하신다면 의견을 적어주십시오